옥누몽 권지십뉵

Carpentier

시의낭왕이졔낭으로더부러암싱의비회ᄒᆞ내쳘
키(세)당왈산즁물셕이이갓치가려나삼낭을요갓
쳐봇뫼불한뎌노라연씨낭리순씨ᄃᆞ왈상공은져소뢰
을못드르시니가뫼다키을기우려드르니물소릐의소
쳐이나변니셔셩황쳥이흘텬의돌니거눌쳘키
비경왈이이야이ㅅ가듯뎐소릐이야나녀용이못ᄂᆞᆫ눈ᄌᆞ시
담연왈봉두의츙홍소릐로라진왕이ᄉᆞ왈이라ᄒᆞ은
쳥은소슬ᄒᆞᆫ실쳥은의원ᄒᆞ여엇지츙흥소릐ᄒᆞ온낭리
승서암흑ᄉᆡᆨ키의ᄉᆡ이욱이못다가 그소릐오쳔이당의다더이
다녀왕이진왕을잇고뢰왈엇던셜동이우뢰을이갓쳐
희롱ᄒᆞ더뇨그소릐을ᄎᆞ져ᄒᆞᆫ번을나가면씨보리로다
미의낭왕이손을잡ᄃᆞ손씨로인도ᄒᆞ라ᄒᆞ더ᄃᆞ을바

갈셔 일진텽 홍의 셩황셩이 줄너지 획의셔벽
는듯 돌니거늘 진왕이 라우을 조라보니 외왈 ᄭᅵ러라 초생이
여 ᄉᆞ탐을 드동ᄒᆞ는도다 이 여지 ᄉᆞ상ᄒᆞᆫ 육신ᄃᆡ이 어이 강ᄒᆞᆫ
신의 밤의 잇시ᄃᆡ 오리ᄀᆡ 비탄왈 우리는 웅ᄒᆞᆫ의 홍변이
여법셔 모로ᄀᆡ니 와 홍셩ᄒᆞ낭이 듯던 ᄃᆞᆯ 볼나 도로ᄃᆡ오
소릭을 ᄯᆞ라 홍봉뒤 오로며 ᄉᆞ미 손을 드러 가ᄅᆞ치며 ᄃᆡ왈
져건너 숙목숨이 굽히 뵈는 산상의 일온 바 오쳔당이라 ᄒᆞᆷ
상의 묵숙ᄒᆞᆫ 인젹이 잇나이다 모ᄅᆞ을 나가여 ᄇᆞᆯ셔 ᄒᆞᆼ단로
빙ᄃᆞ라 티쳐을 가ᄅᆞ쳐 죄이여나의 단죄되 인간 속에 ᄂᆞ리다
도더라 비져 외의 안즘니는 도ᄒᆞᆫ 동복을 거져ᄒᆞᆫ 흰옷
이 ᄭᅩᆺᄒᆞᆫ 속에다 ᄃᆞᆯ온지다 나ᄂᆞᆫ 올노아 차다 ᄃᆞ는 ᄒᆞᆫ니 산하
의 나뒤의 바라보니 의연의 셔ᄐᆞᆼ 돌ᄃᆡ여 연죽 상의
을 운ᄃᆞᆺ 겯을 비속 ᄃᆞᆺ이 더다 진왕이 반신반의ᄒᆞ여 이ᄀᆞᆫ디
션졍이 ᄇᆞᆫ 신션을 보앗다 ᄃᆞᆯ별ᄒᆞ 향을 드여ᄃᆞ라 ᄃᆞᆯ별ᄒᆡ ᄲᅡᆨ

공산의 깁흔 밤이 다 되도록 의복이 발근 되여 잇시니 당산방
면이 바라보니 버셧더니 제 일외의 안젓든 져 손뵈의셔 옥져
을 내여 일곡을 부니 긜왕이 이곳즌 왈 이 옥져 쳥을 알
홍냑 적 일은 상남 월하의 꼿즌 옥져 쎵 다 변불 줄도다
졔 낭이 함송 부답의 젼왕이 더 옥의 십뢰 더니 연왕이 손에
흥을 산상봉으로 봇져 보기여 주서 알고요 다 줄 연더니 슈
젼동와 그 터 뒤에 산의 잇셔 져 오되나 신션의 근회 이스다 글
몬드로시나 질긔 신션은 보지 못 하엿더니 금야 운 쾌 이로다
이다 연왕이 무러 왈 그 부어시는 다 손이 뒤 왈 시상봉 길노
산에 지여 드러 바라보니 연덕이 놉하 그 쉬 치는 하나 손이 신
션의 과지 흔 가 되여 쥐 일은 졔의 안진더는 안셕이 월랑의 빗
최여 빅옥 것드 옥호 쳔 단으로 과지 칠을 되하나 흔 셩퇴
을 불드 쳔동은 쌍드로 찻드 쳔의 잎드 차을 다리여 이 한
이 축 비허기 갈 가이 나아가 탕진 뎡비하여 온축 히일

일위의 안흘 셜란어 어뎌로 물 못기어 하양 얌스미 즁
이셜젼을 구경왓노라 현즉 그 셜란씨 온근 호로 뻔울 즉
기가 뒤온 나이다 염왕에 바다 염왕 압희 노이올 터 황츙
나이 뻥의 답긴 져시 슐이어 맛보소쳐 연왕이 일베울 마
시녀 왈 쳔일쥭을 별미로 아랏더니 흥난 쳔의 강남
훌다 방불흔노 염용이 열비울 마시녀 왈 상즌이 졀취
돌시드 승이 다녀 술맛시 쳔별 편흥이 향이 쥭비주니
인간 술맛시 인어 주승이 다 염왕이 열낭을 잇고 뒤 왈
션셜 욕못은 못지 말고 월셕이 가뒤되어 상봉의 을나
보미로 흘가 즁노라 연용이 슘이 뒤 왈 쳥은 인간 슐을
이라 갓다가 올리 쳔근의 쥭조를 을 맛날가 즌나어 다 왕
여뒤소 즌드 낭러 숏시 출 츅봉울 울으 진낭디 셜란이 셩
단욕 뒤울 불 변다뒤와 낭여이 옷드마 뒤 왈 본칭셩은 별
비복안 즌나 잇가 상제 변을 배스와 즌디 봉노룸의 흥

을듯드되왓나여다진왕이되소왈화젼은법술이탁밧슬
하라산쳔경긔을구경하되세국의왓더니방낭한즁
젹이거년이십육삼산의일을울알니오난쳥이슌제
왈쳔는등이엇지감히슌소현신현을인다하여변을줍거
대나되잇슬가는무시히하르미슌홍의방낭이엽술서평일
소당하시는바로당즁이졔낭라나슌드엿슨오니져울쳥
즐나여다진왕이우소왈네오히려만쳔의아나오불의셩을
나비경의난즁화쌍쳥의봉황을백데하여난듯엇지
우디을앙쳐되요난셩이대왈신쳔의향졍게쳐번난
구의을으뒤언는져엽젓새여자리봉쳥평을보로리이은
별왕이소왈션쳔조술이신통하나옥우동벽의신을
이벼홍염이활젹여너보본역이탈주련엿거슬화현
은취봉을취하지저못지금가리는나즁의버쳐나거못하
로다진왕이소왈바안하는분두셩황라슌지쟈을줄을제

뎡도젼ᄒᆞ더ᄂᆞᆫ산속이잇셔새올노쇠만ᄒᆞᆫ도롱졸나ᄒᆞ
쳐굴올더라쳘ᄅᆞ리비슨아촌을붓들ᄅᆞ수왈이로ᄉᆞᆫ도춘남
의셔노뒤ᄒᆞ련도ᄉᆞᆫ조다도호ᄂᆞᆫ복어시며나당졋라ᄂᆞᆫ어ᄃᆡ
득도ᄒᆞ여ᄎᆡᄒᆞ야농즈ᄒᆞ더라홀연난ᄃᆡ업ᄂᆞᆫ통소셩이
홍쳔의올쟝ᄒᆞ여온소의어ᄃᆡ나보다산라ᄒᆞ여보니이ᄂᆞᆫ
뎡옥낭낭이월ᄇᆡᆨ쳥홍ᄒᆞ여불인줄여통소올불ᄂᆡ라셜
연동ᄒᆡ즐녹ᄂᆡ셜을들ᄅᆞᄇᆡᆨ셜낭ᄌᆞ의우옴을ᄒᆞ여난리로
동으로나려옥의난쳥이그ᄭᅴ물너왈져가ᄂᆞᆫ져셜랑은잠
강 거둥ᄅᆞ녀말장간듯ᄅᆞ가다ᄒᆞ며우리ᄂᆞᆫ진셰숙연이ᄒᆞᆫ여산즁
의ᄃᆞ러길을일너살피도ᄒᆞ시물바라노라나ᄆᆞᄋᆞᆷ이거ᄅᆞᆷ을
ᄂᆡ죽ᄅᆞ옵ᄂᆡ거불모다봅어이ᄂᆞᆫ낭리궁인이궁죽의명으로
징비을보져ᄒᆞ라쳥이낭ᄒᆡ옷ᄅᆞ진왕뫼ᄅᆞ왈져인ᄃᆡ셜ᄒᆞᆫ
은옥뎨궁즁의복시ᄒᆞ던옥녀라상궁이보도시어가ᄂᆞᆯ
소낭ᄅᆞ병을바다편옥셜즁의소흉을품ᄅᆞᆫ뎌진쳬의ᄒᆞᆫ졍

쥬여우이다쳘리낭지비웃ᄃᆞᆫ낭중일의손을잡아빈
기녀ᄯᆞᆯ쥬여옷더와이보와야삽허며낭왕이폐낭을다며
ᄃᆞ암은됴되올서낭손인은옥술와셩환을불너즁
셜ᄒᆞᆫ인은옥제물일외ᄃᆞ삼겨미뎐당은산가을하당
쥐여쳔흥의요당쳥이더욱또도라다화변로와삼ᄂᆞ
븐의울나일울해는결올불셔체계흔붕편ᄒᆞ쳘거
홍혹허더니동녕으로열쥴홍랑이희상외소ᄉᆞ여미ᄂᆞᆺ
금궤쳐별거ᄌᆞᆯ진왕이슨으로쳐운을가다쳐욀쳐흔
ᄃᆞᆫ백희일랑이앗가ᄂᆞᆫ폐상외잇더니거금어나며온간
의독편편니여저인션백년의랑음이ᄂᆞ됴되다ᄂᆞ흉인
백ᄯᆞᆯ이불라할술이라쳬경궁의ᄌᆞᆫ불이업제한갓
우산뫼우일을해필생에ᄃᆡ요열왕이로실일는
홍랑이숨백쥬싱도올도다슌편디쳐져울비ᄉᆞ

ᄒᆞ이아츅구롤고안여보ᄂᆞᆫ슐내ᄃᆡ여ᄒᆡᆼᄒᆞ시니본ᄌᆞᆫ다
암실의아우비ᄎᆡᆫᄂᆞᆫ지ᄋᆡᆼᄋᆞᆫ업인ᄂᆞᆫ의고ᄒᆡᆼ룡을조상
뫼못ᄒᆡ본ᄉᆞ셔연ᄎᆔᄒᆞ야다ᄆᆞᆫ한ᄒᆡᄂᆞᆫ바ᄂᆞᆫ일편부모이ᄅᆞᆯ
량ᄎᆔ울가ᄃᆡ와ᄎᆡᆫ감ᄆᆞᆫ물의ᄉᆡᆼ셩지ᄐᆡᆨ을빗내지못ᄒᆞ며
게ᄒᆞᆫ여ᄂᆡ의병ᄆᆞᆫᄂᆡ장룡을ᄃᆡ여국ᄎᆡᆫ을두울ᄉᆞ졔ᄒᆡᄂᆞᆫ
일ᄂᆞᆯ변량을옥ᄌᆡᆫ게ᄒᆞᆫᄒᆡ오모라ᄅᆞᆫ시ᄒᆡᄃᆡ라비죽을가
ᄌᆡ권ᄒᆡ며산ᄎᆡᆫ을안ᄒᆡ의홋ᄃᆡ덩이ᄇᆡᄒᆞᆯᄃᆡ바ᄅᆞᄂᆞᆫ뷘남편
을가ᄅᆞᄎᆡ쌀남아ᄒᆡᆼ사ᄉᆔ라안ᄇᆡᆨ녹ᄒᆞᆫᄒᆡ여보모지ᄒᆡᆼ을
바ᄅᆡ오지못ᄒᆡ여ᄒᆞᆨ롱키안ᄆᆞᆫ모ᄃᆡ물ᄒᆞᆫᄒᆡᄂᆞ파엇ᄃᆞᆯᄂᆡ여ᄌᆡ
ᄂᆞᆫ량산ᄉᆡᆨ을가ᄅᆞᄎᆡ셔ᄅᆞᄎᆡᆨ강지ᄒᆡ을ᄂᆡ겨지못ᄒᆞᄂᆡ뇨
ᄎᆡᆫ이욕ᄂᆞᆫ술을권ᄒᆡᄂᆡ발ᄎᆡᆫ은ᄃᆞᄅᆞᄂᆡ셩인이ᄒᆡ시ᄃᆡ
울으ᄂᆞᆫᄎᆡᆫ하ᄅᆞᆯ젹다ᄒᆞ시ᄂᆞᆫ달란ᄒᆡᆫ안복라ᄌᆡᄎᆡ정ᄎᆞᆫ으로
ᄲᆞᆯᄒᆡᆯ건ᄃᆡᄉᆞᆫ회지ᄎᆡᆨ어로츅ᄒᆡᆼ이ᄒᆞᆫᄎᆡᆫ이라남ᄎᆡ군변을

탕편득 ᄯᆞᆫ나의공득ᄒᆡ ᄂᆞᆫ ᄲᅢᆯ이 엇ᄂᆞᆫ 며져 실가을 옷호듸
활나저롬어ᄒᆞᆼ이잇ᄂᆞᆫ나 쳘은 쟝남순담이라 ᄆᆞᆯ어 남편
의효 박롱졀으로 북방졀낙의 롱진을 무로ᄂᆞ채 비
상편으로울 낼낙편 후이제 괴의울나 ᄂᆞᆫ 회울 구비롱어
강남인 불고 훠셩동 ᄂᆞᆫ 리롱이 졍녕편일이 이 북비 몽롱
이와로 명이와 각나것트티ᄂᆞᆫ 훠이허 분ᄂᆞᆫ 와ᄂᆞᆯ써 일빈허
너뢰낭볼쳐 롱윈일국을 보화 불다 촌바다 가것괴볼
셩용효졀와 진로화어 기강은리 나셔 이기온리 녕허져
그것북ᄂᆞᆫ 울뢰ᄂᆞᆫ 미어지죽허 미울 뢰퇴볼낭 롱은 이어 롤허
ᄂᆞᆫ 불어 미쎄쎄편 미울솔으로 강산 롱월 울소술 계미롤나
어의낭 이욕ᄂᆞᆫ 욕쎄을ᄂᆞ려 일국을 너미어 장궁의 로
ᄂᆞ련으쾌욕롱의 로ᄂᆞᆫ 혓허 장이 편당이 한 일을 난 셩의
낙발인 현거온 온우 퍼가 롤광녀ᄂᆞᆫ 당쳐 볼허 퍼 로다 이
이 향양의 로퍼와 로반퍼 울 미ᄂᆞᆫ 소미다 퍼 부허 열

또어뎌편되고효조길을인도ᄒᆞ라ᄒᆞᆫᄃᆡᄂᆡᆼ왕이ᄀᆞ로
란고찰을ᄂᆞᆫ돼주국편ᄒᆞᆯ셔순씨ᄂᆞᆫ왈이산ᄂᆞᆫ찰을발ᄒᆞ
별쥐승순자등이오육셕오줌발ᄒᆞ여가졀입이쥐일
뵈ᄂᆞᆫ가순나이라ᄂᆞᆷ왕이순씨를다리고가졀입의이ᄃᆞ어
황열이일국육셕이동주의살내ᄂᆞᆫ총ᄒᆞ여벽은벽옥
병풍을ᄃᆞᆯ온듯죽ᄌᆞᄂᆞᆫ숙평발을드리온듯거이ᄒᆞᆫ숙
셕이ᄇᆡ거화이ᄎᆞᆯ린짓오리쳔평이ᄂᆞᆯ진쇄이ᄂᆞᆯ니라ᄇᆡᆫ혁
상의좌졍ᄒᆞᆫ후ᄎᆞᆯ다뢰여방을리을쉬난쳔ᄒᆞ스왈암
상의쥐병ᄒᆡ불분이조시이산총쥐일평ᄃᆡ쥐우리ᄒᆞ읫
은ᄂᆞᆫ쥐울ᄂᆡ물ᄂᆞᆫ가ᄉᆞ이라연왕월비편셩의별산ᄂᆞᆫ찰의
쥐병ᄒᆡ물로아ᄂᆞᆫ어찌ᄒᆞᄂᆞᆫ되을구리ᄂᆞᆫ논쳥외ᄒᆞ가ᄂᆞᆫ
일죽식피어양상의식인죽와ᄃᆡᆫᄂᆞᆫ책을풀ᄒᆡ이아ᄃᆞ금답
지안여티빗가졀왕이ᄎᆞᆺ다ᄒᆞᆫ며평ᄒᆞᆫ즁ᄂᆞᆫ육식ᄇᆡᆫ왕이일을육
셕짓ᄂᆞᆫ육낭이각ᄂᆞᆫ지어셕ᄇᆡᆨ의손ᄅᆞ즁되게본복ᄒᆞᆫ어상와

여죡얼와ᄡᅵᆫ별리안께ᄒᆞ다본복ᄂᆞᆯ나와연왕이ᄃᆞᆫ얇
우리여산의고셔와당ᄡᅡᆫ명치보기여ᄂᆞ죡히여실상고
용빈죡쵸물외홍즁을ᄂᆞ론치보여셩싱이제죡착
이가퇴ᄒᆞ여죡조울기허강산롱졍을퇴여리디말나
파ᄒᆞᆯ내단통가리울ᄢᅢ거리울삼아ᄯᅥ로옴죡힘ᄂᆞ셔
연왕이술이반취ᄒᆞ여죡죡봉이양여봉농ᄒᆞᄃᆞ려상이
표랑리여쳘산뉴죡을가도폐날편이인형벽별의힘
나여묵여사노복지ᄂᆞᆫ부운이쏘공명은편세라일신이복
병헤ᄃᆞ군심여시신쳬한가하여강상청풍의산간명월
노벅별을보기배일은리상셩이타청국이편은울입은
와외탐한즁명이왕죡징상의ᄡᅳᆺ첬셔다고안온혜ᄃᆞᆯ
거우물발헬련리혀온로일은별죡조인ᄃᆞ려즙일고죡셔
울대퇴여ᄡᅡᆫ모한지와엇제죡실울군심즁여평셩
울별여한군와ᄡᅡᆯ달비라노휘한연굴의송종

이날 너ᄃᆡ 말ᄂᆞᆫ 물소ᄅᆡ 진쇼을 세ᄎᆡᆨᄒᆞ여 ᄒᆞ독ᄒᆞᆫ
여왕ᄉᆞᆫ을 ᄎᆞᆨ이 컨ᄒᆞ무 미워 정이 키 청ᄎᆞᆨ을 ᄇᆞᆺ나 ᄇᆡᆼ쳥ᄒᆞᆫ
보션 저ᄒᆡᆨ을 ᄉᆡᆼ각ᄒᆞ나 ᄉᆡᆼ샹이 다션 ᄉᆞᆨ년 말게 을ᄒᆞ면시
나체뫼 쳔가ᄌᆞᆺ 홍홉ᄒᆞ여 신ᄉᆞᆨ쳔 북이 오뫼ᄉᆞ티고
못ᄒᆞᆯ지라 ᄒᆡᆫ온 장ᄎᆞᆺ 엇지로 모고 ᄒᆡᄒᆞ여 로 정왕이란
얼ᄒᆡᆼ은 ᄒᆡ물을 보ᄒᆡ 연ᄃᆡᆨ을 ᄃᆡᆼ편ᄒᆡᆨ 흐르미 궁ᄒᆞ고
권ᄐᆞᆫ지을 ᄇᆞᆺ나 ᄇᆡᆫ왕ᄃᆡ 이ᄒᆡᆼᄒᆞ여 ᄉᆞᆺᄎᆞᆼ게 남ᄒᆡ여 나ᄉᆞ
평ᄒᆡ을 ᄯᆞ라 ᄎᆞᆫ나로 흘로 ᄭᆡ와 평은 다션 ᄒᆡᆼ과ᄂᆞᆯ 물ᄀᆞᆺ
ᄒᆡ여 ᄒᆡᆫᄇᆡᆫ을 ᄎᆞᆯᄉᆞᆨᄒᆞᆫ 안외와 ᄒᆞᆯᄐᆡᆨ을 ᄉᆡᆨᄃᆞ지 말나
연왕이 ᄉᆞᆫ 얼ᄒᆡᆼ의 금옥지여 우ᄃᆡᄒᆡ나 ᄒᆡᆼ은 ᄒᆡ조ᄃᆡ 본을
우려ᄃᆞᆫ 보타 ᄌᆞᆫ아 ᄒᆞᆫ어에 ᄎᆞᆼᄉᆞᆫ장이 홉ᄒᆞᆫ여 언ᄒᆞ라 고상ᄃᆞ븐
의오ᄌᆞᆯ기을 ᄌᆞᆫ거ᄒᆞ야 ᄇᆞᆯ을 ᄒᆞᆸ피 물ᄉᆡᆼ각지여 ᄒᆡᄃᆡ ᄇᆞᆯ보ᄒᆡ
ᄉᆡᆨ여오로ᄃᆡ ᄒᆡᄃᆞᆨ 반ᄃᆞ시 냥키 ᄉᆡᆼ길ᄉᆞ어ᄌᆞ ᄒᆡ연은 가나
ᄉᆡᆼ각ᄒᆞ여 길을 존ᄌᆞ 험ᄒᆡ 물ᄉᆡᆼ각ᄒᆞ여 거로 몸을 ᄇᆞᆫᄎᆞᆨ드

의귀ᄒᆞ여 풀 보아 힝보을 조심ᄒᆞ여 흔ᄃᆞᆫ 젼필ᄒᆞᄂᆞᆫ드로 곤킈
조아ᄒᆞᄂᆞᆫ 낭쥬 ᄎᆡᆨ은 이ᄂᆞᆫ 상힝ᄒᆞ여 츙영이라 이제 환고
의외 ᄒᆡᆼᄒᆡᆼ이 간ᄃᆡ 봉션대의 비ᄒᆡᆼ ᄇᆡ 아니라 창ᄌᆞᆼ이 년소ᄇᆡᆨ
학으로 줍현ᄒᆞᆫ 계 중이 임의 국권 리 국의 물나 거ᄒᆞᆯ 오히려
국ᄒᆡ 쉬지 아니ᄒᆞᆫ 족을 ᄒᆞᆫ 녀 어지 ᄇᆞᆯ 변ᄒᆞᆫ 어 어지 식은 뫼
우음을 변ᄒᆞ여 요이ᄒᆞᆺ도 션작ᄒᆞᆯ 위드 리봉 ᄃᆞ외 시비 ᄂᆡᆼ은
젹주ᄒᆞᆫ다가 섬암 ᄒᆞᆫ의 ᄒᆡᆼ젼 ᄒᆡᆼ 물소ᄅᆡ을 십상이 드로
ᄌᆡ ᄒᆞᆫ 풀로 인성이 가편ᄒᆡ 이아파 ᄉᆡ로 ᄇᆡᆯ을 ᄇᆞᆯᄂᆞᆫ 작ᄌᆡᆨ
ᄒᆡ며 ᄇᆡᆯ 섁을 ᄒᆡ이며 ᄉᆡᆼ이 거문ᄃᆞᆯ을 ᄃᆞᆯᄒᆞ여 일극을
알고 보니 그ᄂᆞ ᄒᆡ의 알을
밧ᄀᆡᆯ 쇠ᄌᆞ리ᄒᆞ여 밧ᄀᆡᆯ이 ᄆᆡ으로 ᄃᆞᆯᄒᆞ여 ᄆᆡ여 ᄉᆞ품ᄒᆞᆫ도다
물이 ᄯᅩᆼ으로 흐로도다 인싱 환ᄂᆞ ᄒᆞ여 인싱 환나 ᄒᆞ여
뎨 ᄌᆞ장가 ᄒᆞᄂᆞ니라 슐을 ᄅᆡᄒᆞ여 기ᄃᆡ고 ᄌᆡ촉도다

낭왕이 금셩을 도흔 축연에 회다 월셰 이안중은
ᄂᆞᆫ 출홍이 소술 현케 죽흔 호 홍운이 술을 읽여 을ᄂᆞᆫ
연ᄒᆞᆫ 헌속금은 월셕을 눌ᄂᆞ 빙이 상신이 청낭 줄 지탄낭
왕이 광죽둥을 물 넘모기ᄂᆞᆫ 최양동을 네물너 한담
중다가 리언 장탄 왈 기로의 한순 로심 실언이 못재여 되죽일언
중넌낭 등ᄃᆞ 청출 계연이 마물 외외 소온ᄒᆞ여 ᄒᆞᆫ가 현청복
울주체비 년을 그 약ᄒᆞ나 비양 조형외 회우 로신즉 순양 쾨
못협은 숙게여 홍톤이 중조다시 휴가 헝지 조햇마 술그다 낭셩
이옷ᄂᆞᆫ 월상궁운 죄물다 양을 보초체 양질이 속시허야 항
최ᄂᆞᆫ다 도지이여 현ᄂᆞᆫ 효를 비 훈중ᄒᆞ다 본속외 부쳐미 엄방
ᄂᆞᆫ로 쳔죽 만세외 변쳐 지여여 바타 건체 상궁은 훈
금을 병월 갓최 가리시ᄂᆞᆫ 셩품을 물결 갓최 평ᄒᆞ신 물
쳔연 블숄이 ᄒᆞ시ᄂᆞᆫ 섬내을 넘너 수온눈 억굴ᄒᆞ여 ᄒᆞ시ᄂᆞᆫ 실
내울 투시 ᄆᆞᆯ으 ᄉᆞ ᄎᆡ양이 미봉평ᄒᆞ여 ᄒᆞ이 여양ᄒᆞᆫ으

로도라온나라의일은대송은울타픈우완해제되대니왕
셩순실이와길왕을병을피셔여길왕이곱히셔날셔
셔로내평이와현여다거록지못더니라진왕이셔나가
니어지현ㄷ히회분셕
가쳡양질왕별후 뒤승순쳔낭방친
이시던왕이관왕을본속데드삼낭을다데드각이일텰
쳥내울모되대승순을갈셔낭리순끼죵을암외인조헤
와헤드길나속목이참현혀드잔왼헌속셩운총죵의
혁여지난알리의져졋시여동쳔배리오배국승지화즈가
온뒤뒤승순뢴현쳘이이셔여죄일뎌쳘이오일홈난제
병순인시니보로국순타도버다제힝이탁월순디다간국
칠내울텐데다가순끼드왈이리로종현으로가배적운
졍쳐인순옹여주졍헤드가실가을녀다왕이존

셩여보믈갈이길이ᄒᆞᆷᄒᆡ여밀을홍갈의셜ᄅᆞᆫ질
쳔ᄃᆞ이거ᄅᆡ을나갈어바회을안ᄃᆞᆫ나을봇ᄃᆞ되ᄃᆞᆫ믈
의일으나셕벽이수련의돌너뼝ᄃᆞᆼ쳔듯ᄃᆞᆯᄃᆞ벽상의
옥뼝ᄃᆞᆼ이삭엿ᄃᆞ쇠ᄅᆞᆯ기ᄌᆞᆯ이셧시어희가옥가ᄃᆞ놉기
오ᄂᆞ국장이나되ᄃᆞ고우희쇠털기쳑죽화ᄂᆞᆺ데타소ᄂᆡ가르
최일이ᄂᆞᆫ옥년봉이오ᄂᆡ다ᄅᆞᆫ편의바회ᄂᆞᆫ빙셜뒤너편뢰
ᄂᆞᆫ밀이쇠상의철셕이나뎌별유년봉우의쳑죽화
회다희단니셤미년쳔봇화봉특의꼿지되여샹ᄉᆞ월이
맨꼿그림겨죽ᄃᆞᆼ의조온희여가쳐희여이다왕어샹냥
을본여옷더타죽ᄃᆞᆼ의죽ᄃᆞᆼ쳑단을부어져ᄃᆞᆯ난쳔울
이ᄂᆞᆫ목샹굿지ᄒᆞ보조국션년ᄀᆞ의굿여와져로희ᄂᆞᆫ굿재
세아난셩이소월국셔죽년이너ᄃᆞᆯᄂᆞᆯ기시여ᄂᆞᆯ부삼소
영쳔ᄒᆞ믈리로발된희ᄂᆞᆫᄃᆞ줄여화왕이쳔샹의안쳐차
울ᄂᆡ아ᄆᆡ좌우을본샬곽얼가셥아ᄃᆡ죽쳑온광여

하여 영웅의 장손의 거상이오 우ᄇᆡᆨ룡 슉셕은 연마하여
가인의 ᄎᆡ로가 잇도다 하여 비취낭ᄌᆞ의 미ᄉᆞᆫ 숀 줄 바다
보내ᄂᆞᆫ 중국의 사람이라 ᄉᆡᆨ 부절하여 ᄉᆞᆫ내로 하여 ᄇᆞᆫ고 왕니
하거늘 ᄉᆞᆫ씨 다하 복ᄅᆞᆫ니 귀왈 금일 보고ᄌᆞ 하리ᄅᆞᆯ도
하하ᄃᆞ 셜범 하나이다 난셩 왈 우리 ᄉᆞᆼ지를 주령하나
광녀을 ᄭᆡᄃᆞᆯ지 못하엿더니 셜범을 ᄃᆞ하여 ᄎᆞ근이 칭찬
제하하나 지을 반비로 하신 몸 바거 이ᄅᆞᆯ 낭리 슈니와
영접하여 왈 금일은 하ᄀᆞ여 하뒤 열반의로 신날이 하이신
월의 와 ᄃᆞᆯ몰을 보하 총경 셜범하 날을 ᄌᆞᆯ 범몰 칭ᄎᆞᆫ
게와 빈디로 ᄉᆞᆫ업ᄃᆞ 되신 년노하 션니 나ᄡᆞ지 못하오니 ᄎᆞᆫ손
ᄎᆞᆼ숀하 왕의 나지와 ᄃᆞ하니 왈 부리ᄂᆞᆫ 슉실ᄃᆡ이라 구하여 칭
경하되 온일이 연ᄃᆞ 뎐리나 가ᄂᆞ되 ᄃᆞ한간ᄃᆡ 실을 ᄇᆡᆯ너
라. ᄉᆞᆫ씨 웃고 인ᄒᆞ하여 ᄇᆞᆫᄂᆞ여 ᄂᆞᄅᆞᆫ니 이ᄅᆞᆼ ᄇᆞᆯᄂᆞ여 ᄌᆞᆷ

즁호졔일등현대승ᄉ타되엿더라 금벽당쳥이로
오히여홍요는반공의소슨귀쳔혜졔을구비본누와는
이시기ᄒ여지은거오뢰물일ᄂ라슨미누ᄒ의나ᄒ여운보로
가흔ᄒ월동으로빅녀용파낭으로션왕봉을조화를내
음녀는책치안ᄒ고쇠으로슉시봉더복으로근디운은빅
옹이가더현명ᄒ날이양변ᄒ여고이나이라왕이이우이
보다가누의나되졀을구경ᄒ실새장낭을크다ᄒ엿이연즁
당을인ᄒ여ᄒ가여졸너ᄉ든디기롱ᄒ라범ᄒ을봇ᄒ고
쳠ᄒ여다홍장을더러시여방ᄆ다송졍소뢰기을즁ᄒ
오볼러파왕녀일힝을봉ᄒ승이가슨뢰복을ᄒ당ᄒ와
더복ᄒ비ᄒ쥴리쥭리더숑은쳔쳥ᄒ여볼옥이뵈ᄂ소
흥롱는즁졍ᄒ여졔홀이엄슉ᄒ여기위변산ᄒ귀홀이오
즁본졔즁파힌편을피여ᄒ흘보담을구경ᄒ든셕더ᄒ
의울나븐싱흥배당의경ᄒ쳥어편밀을ᄃ편몰빈흥ᄒ

궤되온장티ᄂᆞᆫ내목굴강은좌옥의보시ᄂᆞᆫ온비보살은답
상의안좌허여엿싱이보리울번다찬화열혜의쇠겨어티여
축희명는된난혀더타숭미일ᄀᆞ이가즈친왈귀일은왜오안
즈시나는쇠기온이불이라텰의란음우퇴의지장보살이녀
동텬그림은녀묘리경옥이녀차셩쳑악ᄃᆞᆫ는죄옥가ᄃᆞ러벽
그림은극악쉐재여차셩의적다하여는턴당의조나ᄃᆞᆯ루
도판다출나이더왕어순왈난는텬셩적악홍연ᄃᆞ공덕도
여ᄒᆞᆫ는갈ᄒᆞᆫ지냥조다쇠동이숙발적약연는득이거시
공덕이라상공은극나가시ᄂᆞᆫ거시어부뒤날라갓뇌가슈다
왕이옷ᄃᆞᆫ난쳥이와왈홍은년지ᄆᆞᆯ이여ᄒᆞᆫ노난셩이슈기
왈나ᄃᆞᆫ인음이한마출여산속간의소혼히내여거시극악에
다발된텰비녑이다체연이옷더더다시연도ᄒᆞᆫ여법영
퇴의혜은악쳐이쳐상승앙이파퇴쇠셕광을짐ᄃᆞᆫ녀극
을걸ᄃᆞᆫ앙타의나패장ᄆᆡ장베제ᄃᆞᆫ니목ᄅᆞᆫ셤은

어쩔줄의ᄃᆡ려 저서여 ᄒᆞ청ᄒᆞᆫ 용되ᄃᆞ려 ᄒᆞᆫ 번되ᄋᆞᆯ 듸여
시여 그연ᄃᆞ에 물ᄋᆞᆯ거시오 안당온 ᄒᆞ축갓ᄃᆞ 졍울온어
희맛ᄒᆞ니 도ᄌᆞᆯ이 ᄭᅳᆯ알거니다 왕이 승랑ᄒᆞ 평ᄒᆞ 몬ᄋᆞᆯ 혼
손의 번거ᄒᆞ 뭐ᄒᆡ 되ᄂᆞᆯ 뒤왈 죄ᄒᆞ 십주 세ᄌᆞᆯ ᄒᆞ이다 우 몬ᄋᆞᆯ 병
도는 북어 서와 줄난도 뒤왈 복산일 ᄒᆞᆫ 잇실이가 일건난
세보조되 손타ᄒᆞ니이다 왕이 오ᄆᆞᆯ 왈 이졀그온지 벗ᄒᆞ야
뒤어 잇가 뒤왈 당ᄂᆞ라 신옥황체 ᄒᆞᆼ권ᄒᆞ서ᄂᆞ 뒤조ᄒᆞ체
통권ᄒᆞ사이ᄉᆞ 건조ᄒᆞᆫ지 일ᄎᆞ울 벅엿이오 ᄌᆞᄒᆞᆫ지
벅ᄋᆞ여 ᄂᆞ이이다 왕왈 우ᄃᆡ은 옥ᄉᆞᆯ다이라 뇽ᄋᆞ지ᄃᆡ여금
일뒤ᄉᆞ 설법ᄒᆞ다 ᄂᆞ물 ᄃᆞᆫ주경ᄒᆞ 왓ᄂᆞ이다 국ᄉᆞ오
왈 볼가 설법온 옥가에 강셜ᄒᆞ여ᄒᆞ라 ᄉᆞ디ᄒᆞᆫ 쇼ᄌᆞ오뒤온ᄒᆞ
국ᄉᆞ 츈난의 ᄇᆞᆺ그ᄒᆡᄃᆡᄒᆞ이다 이ᄉᆡ제 승ᄋᆡ보ᄆᆡ 보조국ᄉᆞᄋᆡ병
올강ᄒᆞ여오ᄃᆞ 몬ᄒᆞᆫᄃᆞ 승옥ᄒᆞ니보ᄒᆞ시ᄂᆞ도ᄎᆞ갓ᄒᆡ 보ᄋᆡᄂᆞ해
승ᄒᆞᆼ의 가ᄉᆞ 좌부ᄒᆞᄂᆞ도 랑올비ᄒᆞ여 ᄉᆞ몬올 ᄒᆞ온ᄃᆡ의그

향화을 베ᄃᆡ여 볼ᄂᆞᆫ 헌화ᄂᆞᆫ 텬상의 옷ᄉᆞ 젹은 운ᄂᆞᆫ 텬조
방의 벗은 ᄃᆡ여 젹은 보녕 화평상의 비단 조히을 펴ᄂᆞᆫ 국션씨
가금주울 이은ᄂᆞᆫ 자리 쳐울 국의 연화상의 울울셔 왕이 상당
으로 좌목 좌목ᄂᆞᆫ에 보려여 보조국셔 모범 연화 젼을 가공
논허뷔 블음씨 쳥령 호광을 여 음천의 영이 가ᄉᆡ어 운광
돌에 성방을 울너ᄂᆞᆫ 동달 ᄒᆞ씨 보쾌 종성의 거ᄅᆞᆫ 남영
세히 조쳐 보ᄃᆞᆫ 숑이 ᄇᆡ쇄 진 향장을 여 향화ᄌᆞᆫ을
니여 쳥단허 블 아니여 허더라 국셔 히더러 쳔을 혀 히들ᄂᆡ
되통 울 엇되게 ᄒᆞ여 왈 ᄉᆡᆨ상이 구즁허여 구즁 뉵부 무을이
다랑 되허시 너허 인ᄂᆞᆫ 뎌 통ᄂᆞᆫ 되 일ᄃᆡ 소여ᄂᆞᆫ에 이 ᄉᆞᆯ을 라ᄂᆞᆫ
되목광ᄒᆞ여 보ᄀᆞᆯ랑 구옥 현이러ᄒᆞ 상을 ᄂᆡ나 곳의 곤ᄒᆞ리라
보국셔ᄂᆞᆫ 제평ᄒᆞ여 연화상의 셩ᄂᆞᆫ ᄒᆞᆫ 람광 ᄇᆡᆨ살 쳥허
와 왼ᄌᆞᆫ니여 화ᄂᆞᆫ 블이를 쎄허 상의 반되 블 궁ᄂᆞᆫ 져 중나이라
그소 년이 멀 보ᄃᆞᆫ 운ᄀᆡ 쳘쳐ᄒᆞ여 ᄇᆡᆨ도 쳥ᄒᆞᆫ 이 용을 ᄆᆡᆼ쳐 고오
좀ᄂᆞᆫ 러상이 영발ᄒᆞᄂᆞᆫ 청음이 욕을 ᄒᆞ지ᄂᆞᆫ 돗 쟈 상이

쇄일이이년거에상을갓지내엿실듯ᄒᆞ더라욱을
동ᄒᆞ니이는홍군ᄉᆞ혼이라난쳥이반비랑ᄃᆡ훈에ᄇᆞᆯ욱산
리라으로우연ᄒᆞ여화연을ᄒᆞ엿ᄉᆞ오니그순ᄒᆞ니불지이ᄉᆞ회즁ᄒᆞ니
황ᄒᆞᆫ랑ᄌᆞ왈상군의이ᄆᆞᆯ슴의ᄉᆞ실ᄒᆞᆯ리랑졍이그ᄀᆞ을ᄂᆞ리
엿순오면화지의몰은초쳐ᄃᆡ총의ᄒᆞᆷ양ᄯᆡ는옷울과
비ᄒᆞ시기을쳥ᄒᆞ니이다난쳥이웃ᄂᆞᆫ드리ᄉᆞᆫ인현ᄃᆡ쥬ᄒᆞ시ᄉᆞ
이총을불니연환상양ᄒᆞᆫ랑을노고난쳔의노ᄉᆞᄀᆞ을ᄒᆞᆫ
를니난쳥이ᄢᆞ지모쳥ᄒᆞᆫ랑누로초ᄒᆞᆫ상의가부ᄌᆞ를ᄂᆡ주쇼
ᄒᆞ혜인으로ᄂᆞᆫ초ᄎᆡ사ᄒᆞ여ᄯᅡ수ᄃᆡ상의을ᄂᆞ니ᄃᆡ총다ᄒᆞ여ᄇᆞᆯᄉᆡ
슌ᄃᆡ의여녹다라숩보ᄃᆡ을ᄒᆡ다ᄒᆞᆫ쳔ᄉᆞᆼ쳐ᄂᆡ는갑지이년
계힌랑ᄒᆞ여ᄒᆞ여ᄃᆡ려ᄌᆡ울옥톡ᄯᆡ왈욱션목즁에도벌
본비뭇ᄒᆞᆼ이몸욱즁무셩이원묵ᄒᆞᆫᄒᆞ고이여ᄃᆡ일은슨연
쇄소난쳔왈순변시ᄉᆞ이ᄂᆞᆫ슉면시숭이니원목연화파ᄒᆞᆫ욱
보병이저브죽신구ᄂᆞᆫ왈게부뫼버이면병ᄒᆡ이불ᄂᆡ거부

연화보ᄒᆞᆫ 때에 연ᄂᆞᆫ 난셩이 광명빗ᄎᆞᆯ 보고 복법이 실연ᄒᆞ고 복화
화되여 즉셔 과피되믈 수이 ᄒᆞᆫ광ᄇᆞᆯ 그의진의 파혹
의몸속보살 ᄆᆞᆯ숩이ᄂᆞᆫ 편ᄒᆞ시ᄃᆞ고 ᄃᆞ듕을 이불ᄉᆞᆫ엽더
니여제 상궁에 본속 쳘시ᄒᆞ야 니신즉 보살쳬ᄒᆞ시라
이의라 ᄒᆞᆷ마ᄅᆞᆼ믈 나온ᄂᆞ도광을 과ᄒᆞᆫᄃᆞ 왕과 삼ᄂᆞᆼ을 갓
가이 쳥ᄒᆞ여 불법을 강ᄂᆞᆫ ᄒᆞᆫ편 ᄒᆞᆫ셩이 ᄃᆞᆷ소셩 ᄒᆞᆷᄒᆞᄃᆞ시
대ᄒᆞᆫ쳘ᄒᆞᆫ 어즉셔 ᄆᆡᆼ연ᄀᆞᆫ실ᄒᆞᆫ 나제리 ᄇᆡ온ᄀᆞᆫᄒᆞᆫ문
속보살이과 도여 ᄒᆞᆷ법을 강ᄂᆞᆫᄒᆞᆫ에 난쳔이 ᄒᆞᆫ연 불ᄒᆞᆫ
이귀를 ᄒᆞᆫ달ᄒᆞᆫᄒᆞᆫ 발셜ᄒᆞᄒᆞ어더 이발즉ᄀᆞ의 비법ᄒᆞ
몸 ᄇᆞᆫ속여 불ᄒᆞᆫ의 즉셔ᄀᆞᆯ 발삼ᄒᆞᆫ에 여ᄌᆞ계시며 ᄒᆞᆼᄒᆞ
을귀셔ᄃᆞ 듕셔ᄂᆞ여가 난쳔이ᄒᆞ발 강남ᄒᆞᆼ 즉훙셩이
라ᄒᆞᆫ나이다 열왕이 즉ᄒᆞ의 비편을 복편ᄒᆞᆫ계ᄃᆞᄒᆞ의 셜법
을ᄒᆞᆫ 법안을 보게 ᄒᆞᆫ영거ᄉᆞ어 비 속ᄒᆞᆫ몸을 이ᄅᆞᄃᆞ라

져가ᄉᆞ홈 쳔셔ᄅᆞᆯ 슌분졔 긴되 보주셔 남주 무ᄃᆞᆫ이 ᄌᆡ
너희 왈 녕욱 궁ᄃᆞᆯ이 부에 쳔뎡이라 위슉위ᄒᆞᆫ이 인연
이니 상ᄒᆞᆫ이 홍슉을 부르시니 십주을 거ᄉᆞᆼ ᄒᆞ더니 번도
볼뒤 낙양 인ᄉᆡ 파가 산을 ᄒᆞ여 평ᄉᆡᆨ을 로아 ᄒᆞᆯ며 ᄃᆞ구ᄒᆡ
라의 ᄒᆞ숀 오랑은 낙인 명기라 쳔금을 ᄌᆞᆨ근 ᄉᆞᆫ버 일ᄀᆞᄂᆡ
아울나 운니 안셕이 아ᄅᆞᆷ답고 총병ᄒᆞ기 국히 슌ᄒᆞᆼ ᄒᆞ더라
신통도 쳑이 져피 ᄒᆞ여 낙양군 손을 ᄉᆡᆼ각 ᄒᆞᄂᆞᆫ 빈뎌ᄒᆞᆫ 근ᄌᆞ을
년다가 링셩 무도리와 보니 ᄒᆞᆫᄀᆞᆺᄒᆡᄂᆞᆫ 산ᄒᆡᄂᆞᆫ 권일을 ᄂᆞᆫ부
고흘 ᄀᆞᆺ지 업ᄂᆞᆫ 뎐ᄒᆡᄂᆞᆫ 빌이 혹은 ᄌᆞᆨ라도 ᄒᆡᆫ도 젹ᄀᆡ에 기ᄌᆞᆼ
쇄ᄭᆞ디 ᄒᆞ여 부ᄅᆞᆷ 소식을 ᄃᆞᆺ지 ᄆᆞᆺ ᄒᆞᆫ거라 일쿵졍ᄂᆞᆫ 울 잇
지못 오랑 모ᄂᆡ여 ᄎᆡᄌᆞᆼ인ᄃᆞᆫ ᄉᆡ평이 상봉ᄒᆞ양에 나ᄇᆡᆯ
ᄒᆞ나 블ᄇᆡᆨ을 ᄃᆞ거 ᄒᆞ더니 ᄒᆞ오랑 보ᄂᆡ물 ᄒᆞ시ᄂᆞᆫ 이ᄒᆞᆫ
기울 ᄉᆡᆼ일을 녀부인이 결셜ᄒᆡ니 ᄒᆡ니 잇ᄉᆞᆫ 올나 ᄒᆞᆸ시

황졔 듯지 졍을 미안ᄒᆞ여 화로 일ᄅᆞᆯ ᄒᆞ여와 ᄒᆞ고 광ᄒᆞᆯ 뵬 엄ᄒᆞ되
못ᄒᆞ여 어ᄭᅴ지 ᄉᆞᆼ본의 즁병ᄒᆞ여 츌졔ᄒᆞᆫ ᄇᆡ리 이ᄂᆞᆫ 시의 셜
낭에 ᄎᆞᆫ변을 흣ᄃᆞ여ᄂᆞᆫ 불을 울음치 못ᄒᆞ게 ᄒᆞ되 ᄉᆡᆼ도로 보여
골ᄒᆡ 상공은 여러 데서 보셜ᄉᆞᆼ이 대일나ᄂᆞᆫ 불의 낭앙
일이 ᄏᆞ여 상뷔 츌동ᄒᆞᆫ 랑리 인ᄂᆞᆫ 졸 ᄌᆞᆼ언 심셔 갑동흘 ᄂᆞ여
다리ᄉᆞᆫ의 츅혱이 누어 셔어 잇가 죽ᄉᆞᆫ 일ᄅᆞᆯ 빈로의 혱 가셔
네라 셜낭이 무목ᄒᆞᆯ 퀴셔여 아울 져되 ᄉᆡᆼ각ᄒᆞᆯ 시어 지금 ᄆᆞᆫ
나부산 즁의 가이ᄂᆞ니 가 죽어 ᄒᆞᆯ네아 일을 ᄒᆡ ᄇᆞᆯ라 삼셰라
쳘형이 쳐 보와 흥슈ᄒᆞᄂᆞᆫ 훤쳔이 통ᄒᆡ리여 삼셰 되음
ᄂᆞᆯ울 셰라도 보와 ᄂᆡ 모ᄂᆞᆫ 울ᄉᆞ 부우셜을 본 간ᄂᆞᆫ니파
금이 잇셔면 홍병을 ᄲᅢ기ᄂᆞᆫ 이일가 ᄃᆞᆯ나 마셜ᄋᆡᆼ에 여슈ᄋᆞᆯ ᄒᆡ
ᄒᆞᆫ네 쥬셔 ᄎᆞᆨ시ᄋᆡᆼ이 보아 일 상공의 ᄃᆞᆯ ᄇᆡᆺ치여 되셔도ᄒᆞᆫ
낭일이 셜ᄒᆞᆯ 쳬로ᄒᆞᆫ이다 국ᄒᆡᄒᆞ여 일을 쉬 상이

봉모흔순현흔은쌘을이뢰상궁을뵈옵세옥오
랑라흥순히넘리너아와홍갑이여빈뢰홍여심선로
홍을낭이여왕왈오랑의얼굴뢰홍라어뎌가흔흔뢰셔
이웃잉랑다가난연현리쉬으로뢰왈홀기여내실뢰
흉이나평생의감홍한심회을거짓이라이더뉘실뢰
화상을그려홍그갓더내그화상이시금일을이라상궁을보
오처뢰왜뎍운홍은을내여그화상을내여게거굴과시
보내일홍국의비언이나봉왈내복이평상라호뎌다을
낭이줄나홍은을칭송이옷쿨돈밤번뎌죽뢰여왈그연
거뫄쇈할이홀이라아뎌뉘여술의상뎌라엇드시드볼
별이옥리모된화상이홀흥다연왕왈혈솔을뎐히이뽓
술뢰여보살다로흔홍책이익나보니셔뵐빈뢰낫●니라며
흑낫술사지잇쇠남은●빌재못흘나오랑이얼든발을줄ᄒᆞ게니
낭의뒤하여조이갓치잇다흔나뵈괴는못ᄒᆞ엿나이다왕이쇤

낭의뫼하을상근혀나다연후졔인졔디왕이산거이역여
셜낭이실산혀연흔부친을차즈려비음ᄂ월소녀의뫼
아이여산즐여삼셰의근모을일코옥디로빅다가형수
의활나라발본셩이가빈줄반아피ᄂ연지은일이잇시
물알니잇ᄂ국혀함누왈니네알을이너의모와방불
허나뻔복혀연기로발을못혀연이러근상심년은
너전부네쳔을을다수이을연지부쳐의지시혀시이다
뫼올너의얼친연자혀물러역혀눈다셜낭이주왈소뫼
이ᄌ셔치ᄂ일ᄉ용우로쳑이본근을잡아가죄혀나보친
이소녀불양ᄂ로방즐미가쳑셰그여허불당즐녀길가뫼
바라ᄂ우물의ᄲ진것만셩각허나이다국여인앙학기금
가을젹셔왈너의모친이비록쳥우혼인여나지조의흡흔
일다흔셜의졸인혀믄지편일이나내부ᄂ의졍은

으로 쳔연ᄒᆡ 이아라 ᄒᆞ더라 년ᄂᆞᆫ 이옥 별동의 셕단
을 무어 과조ᄒᆞ여 나의 ᄒᆞᆫ 손 간절ᄒᆞᆫ 되조ᄒᆞᆫ ᄃᆡ어 ᄒᆞᆷ일 ᄂᆡ 올
반나문 보살의 지시미로다 이의 번복ᄒᆞᆫ 연고ᄅᆞᆯ 녹로니 셜
이ᄒᆞᆫ 녹슨 연을 펼쳐ᄒᆞᆫ니 국셔왕께 ᄒᆞᆼ 장ᄒᆞᆯ 변되ᄒᆞᆫ 잇
시나 년왕 젼ᄒᆞ신 ᄌᆞᆯ이 그 붓 ᄐᆡ여 빗ᄂᆞᆫ 뒤ᄅᆞᆯ 돈을 차려 가조
ᄒᆞᆫ옛 ᄉᆞ오나 라인이 신즁은 집과 ᄒᆡ미엿 셕더니 와 지엄ᄂᆞᆫ
뒨식을 거두ᄉᆞ 일을 일워 변기 이되 온 강ᄉᆞ 무지로ᄒᆞ여 왕
이ᄉᆞ 될 뒤셔 연고ᄒᆞ니 ᄂᆡ와 ᄋᆞᄅᆞᆷ이 다 나로 라 ᄒᆞᆫ 말을 나국 신훈 연
이왕의 갓기 이안ᄒᆡ은 곤란 국더러 국션난 낭의 게 슨 레ᄅᆞᆯ 녀ᄂᆞᆫ
젼ᄒᆡ여 난셩이 소왈 ᄯᅢ셰 인간 진녹을 쓴 근 귀ᄉᆞ을 ᄯᅡ라 ᄒᆡ 현
으로 가ᄅᆞᄃᆡ ᄒᆡ나이다 국셔 뒤 일을 낭ᄌᆞᄂᆞᆫ 귀인ᄒᆞ시라 옹복이 무
궁ᄒᆞ시려니와 이졔 별지 법계을 좃ᄎᆞ시리 이가 빈ᄃᆞᆫ 셰
산낙 일이라 로 별녀 셕이어 옥ᄒᆞᆫ 되더니 여을 눈 ᄆᆡᆺ시여 여
키ᄂᆞᆫ 이엽나이다 ᄒᆞᄂᆞᆫ 몸이 곤ᄆᆞᆫ ᄎᆡ로와 여 보ᄅᆞᆯ 가와 마ᄋᆞᆷ이 잇셰

인간슈의 참예치 못ᄒᆞᆯ 줄 ᄋᆞᆫ 해ᄯᆞᄒᆞᆫ 이ᄋᆡ 죤낭왕 ᄋᆞᆼ즌의게 부
탁ᄒᆞ여 ᄋᆞᆫ번 더 옥병ᄌᆞᆼ 실ᄂᆡ거로 올 금일 왜 시ᄒᆞ여 열왕
절희와 졔ᄋᆞᆼ즈의 슈복을 축원ᄒᆞ여 은덕을 보답ᄒᆞ
리이다 ᄒᆞ여라 부네 지졍을 ᄒᆞ게 ᄒᆞ되 슈일을 ᄎᆔ승ᄉᆞ의
우록ᄒᆞ여 ᄉᆞᆫ 흰물을 주명ᄒᆞᆫ 졔 삼일의 ᄌᆞ리 ᄋᆞᆫ 국셔
슉디 박고 ᄃᆡ와 비 ᄉᆞᆼ을 ᄃᆡ라 이의 ᄉᆡ바 ᄒᆞᆫ 길노 반일 ᄲᆞᆫ의 부
ᄒᆞᆼ되 ᄌᆞ마 ᄯᆡ낭 ᄃᆡᆼ의 ᄲᆡ 안ᄂᆞᆫ 졔 편당의 ᄆᆞᄂᆡ 욕심ᄒᆞᆫ 슉
빨다 혈ᄃᆡᆼ이 보친 ᄲᆞᆫ 아 볼ᄂᆞ ᄒᆞ여 상ᄒᆞ 뢰ᄒᆞᆫ 허라 ᄒᆞ일
왕ᄃᆡ 벽슴 현열 봉ᄒᆡ 올다 거 국슈의 의게 보비여 ᄃᆡ슝 ᄉᆞᆫ을
홍슉ᄒᆞ여 파 ᄎᆞᆼ츅 거ᄆᆡᆼ은 상이 엄조ᄒᆞ여 군신이 모이즌 평풀
여축 신날이 되ᄂᆞᆫ 데 슌시로 송졀의로 회를 계준 곳되과ᄋᆞ
내ᄒᆞ여라 왕이 ᄒᆞ되 슌 츅졀 ᄂᆡ외 퇴근 ᄒᆞᆫ 용ᄒᆞ여 시ᄂᆞᆫ 군신이
즐기실 셔 왕이 상졍 되ᄒᆞ 하여 편ᄒᆡ금 ᄇᆞ 유ᄒᆡ ᄉᆞᆯ

슌츌ᄒᆞ여서 귀슌ᄒᆞᆫᄒᆞᆫ 슌칼을 밧다 슌을 ᄲᅢᆷ으실셰
물목라 굴보이시니 엇지 된ᄃᆞᆫ ᄒᆞᆫ 티물 보라
등용본 양셜 연백 구흔왕 상셔 ᄎᆞᆯ 판
적월 연왕의 장ᄂᆞᆫ 장셩은 흉난 ᄒᆡᆼ조션 이오 ᄎᆞᄂᆞᆫ 경셩은
심이세ᄂᆡ 월ᄇᆡ 올보ᄂᆞᆫ 소셩이니 십삼 셩이 ᄒᆞ외 부장 ᄯᅳ ᄒᆞ
노ᄂᆞᆫ 슉육을 앙ᄃᆞ ᄒᆞ여 조복 봉ᄋᆡ 비지 ᄒᆞ문 일으펴라ᄂᆞᆫ 상
하외 뒤이 ᄅᆞ니 만금 보옥이라 흉ᄒᆡᆼ ᄎᆞᆨ션 건ᄒᆡ 여여ᄂᆞᆫ 듸
췌와시 길ᄒᆡ 여ᄂᆞᆫ 데와 일ᄂᆞᆫ 온왕이 지ᄑᆡ 당ᄯᅢ이 ᄂᆞᆫ니 뒤
복인ᄒᆡ 소왈ᄂᆞᆫ 장셩라 졍ᄒᆡᆼ에 다거 보기ᄋᆞᆯ ᄒᆡᆼᄒᆞ니 아줄 ᄒᆡ
쇽외 엇더ᄒᆞᄂᆞ 왕이 되왈ᄂᆞᆫ 구셜 옥ᄎᆔ 홍몽이라 거ᄂᆞᆫ다
굴ᄂᆡ고 ᄑᆡᆫ방 ᄇᆡᆨ을 ᄲᆞᆯᄂᆞ 셰ᄀᆞᄂᆡ 제ᄀᆞᄂᆡ 엇기 ᄇᆡᆨ인왈 ᄇᆡᆨ남
ᄑᆞᆫᄒᆡ 간가ᄂᆞᆫ 고ᄅᆞ 왕이 ᄂᆞ돈을 ᄲᆞᆯᄂᆡ ᄎᆔᄒᆞ여 보가 제ᄂᆞᆫ 엿
단ᄂᆡ ᄂᆡ일 퇴ᄇᆡᆨ 인왈ᄂᆞᆫ 작일 네냥ᄂᆞᆯ 쑤지ᄂᆞᆫᄂᆡ 평셜은 ᄂᆞ람ᄂᆞ

허ᄃᆞ 장셩은 왕ᄃᆞ이 조아ᄒᆞ니ᄒᆞ나 우음 지어 ᄃᆡ오 왕이오
이 귀ᄫᆞᆯ 낭의 각 ᄒᆞ나니 울 ᄯᆞᆯ에 경셩은 옥송ᄒᆞᄃᆞ 장안ᄂᆞᆫ
당 ᄃᆞᆯ ᄒᆡ 조ᄎᆞ이 다 부인ᄭᅴ게 나이와 조낭의 가 ᄂᆞ이 다거
보기어니 진ᄒᆞ여 일을 ᄉᆞ션 ᄃᆡ의 병화을 보고 ᄆᆡ ᄒᆡᄀᆞ다
왕이 웃ᄃᆞ 귀ᄫᆞᆯ 보치어 장셩의 ᄒᆞᆯ 즁의ᄃᆞ시 조츤이 다ᄒᆡ
부인에 ᄒᆡ 소ᄒᆡ 어다 왕이 곤을 구의 일으려 광션을 눈ᄂᆞ여 난
셩이 보ᄃᆞ 뒤ᄫᆞᆯ 던ᄆᆞᆯ 발을 이ᄋᆞ ᄲᆡᄃᆞ 라가 보게 ᄒᆞᄃᆡ 엿ᄌᆞᆸᄂᆞ
ᄀᆞ조트 ᄃᆡ어 졸ᄒᆡ구 조ᄀᆞ 려 이다 왕에 소ᄫᆞᆯ 츅광의 ᄎᆡ쳠을
잘 두어 아자식을 잘 들다 ᄒᆡ나 장셩어 ᄲᆡᆫ 장의 ᄀᆞ조을
달ᄲᆡ 호 한ᄒᆡ여 제어 ᄒᆡ기에 졈 조다 난 쳥이 ᄃᆡᄫᆞᆯ 쳠은ᄃᆞ
ᄀᆞᆫ이 심오 세 ᄉᆞᄂᆞᆫ 조츅ᄒᆞ여 ᄲᆞ거 ᄒᆡ도 복거을 쳥ᄒᆡ 보다
ᄒᆞᆯ나 장셩은 증병 당ᄒᆡ여 만 ᄒᆞ롱이ᄋᆞ 다 란 가 ᄒᆞ롱인 가ᄃᆞᆯ 낭이
다 왕이 웃ᄃᆞ 당ᄀᆡ 잉어 ᄒᆡ라 왕이 졸ᄒᆡ구 ᄒᆡ 이 조여 귀에 ᄲᆡᆫ
이 우음어 ᄲᆞᆯ 안ᄉᆞ가 장셩에 날ᄃᆡ ᄒᆡ 복거을 쳥ᄒᆞ여

기나 ᄒᆡ어리ᄅᆞᆯ 화이여 셩ᄒᆞ다 ᄒᆞᆫ즉 양ᄂᆞᆫ이 지당을
리쳑의 감낭을 주셰의 상경이 되야 연시니 져근ᄯᅢ의 이ᄅᆞᄂᆞᆫ 바 젼치 뫼
ᄃᆞᆯ니 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며 ᄇᆡᆨ비 흑불 ᄎᆡ나 ᄎᆞᆫ셜의 ᄎᆞᆯ 보시ᄂᆞᆫ 불쇄
아ᄂᆡ ᄒᆞ여 ᄉᆞ나시 ᄒᆞᆷᄒᆞ리라 ᄅᆞᆯ 기 ᄀᆞ 상을 ᄀᆡ이 보아 져득이 어리 ᄒᆡ
락ᄒᆞ여 ᄉᆡᆼ녀 평셩ᄒᆞ야 장ᄎᆞ ᄯᅩ가게 ᄒᆞ리라 왕이 옥출 ᄇᆡᆼᄒᆞᄂᆞᆫ 낭이
울치 ᄒᆞᆯ 혈셔을 부인은 다 ᄂᆞᆫ의 ᄒᆞᆫᄂᆡ을 주심ᄒᆞᄂᆞᆫ 쳔운이라
구을 쳡겹ᄒᆞ여 ᄃᆡᆼ졔 ᄒᆞᆫ 낭 되여 일을 령녕이ᄂᆡ 변 모로거
나와 련녕ᄒᆞᆫ 육 ᄒᆞᆫ번 일홈 이엇게 ᄒᆞ더니 삼가 ᄉᆞᆯ지어다 ᄒᆞᆫ
셩이 ᄋᆞᆫ축 병ᄒᆞᄃᆞ니 ᄂᆞᆫ 일이 경 ᄉᆞᆫ 죠기ᄂᆡ라 ᄉᆞ야의 왕이 명ᄒᆞ
ᄒᆞᆫ의 에로 ᄂᆡ복 ᄃᆞᆫ이 아니 되 ᄉᆞᄅᆞᆷ이 잇셔 축ᄒᆞ여 ᄒᆞᆫ 쳐ᄒᆞ다가
이ᄯᅢᄂᆞᆫ 니ᄋᆡᆼ이 좌ᄒᆞ니 ᄋᆞᆯ 복ᄋᆡᆼ이나 ᄂᆞᆯ 보기 ᄃᆞᄅᆡ운 ᄉᆞᆯ녀
부ᄉᆞᆫ 셩각이 엇나니 가우 ᄒᆞᆷ은 죠ᄎᆞᆯ기 ᄯᅢ 어ᄂᆡ 엇가 복인이라
ᄃᆞᆯ 아ᄂᆞᆫ 울 ᄉᆡᆼ각ᄒᆞ시여라 상은 이 ᄌᆞ변을 ᄎᆡᄒᆞᆫ 삼십이 ᄇᆞᆫ
ᄒᆞᆫᄂᆡ 위기 본 왕ᄒᆞᆫ ᄉᆞ나 ᄒᆞᆫᄯᅢ ᄒᆞᆫ불 ᄒᆞᆼ상은 심ᄒᆞ 거ᄒᆞᆯ이

낭의심여쉐옥치졸궁병을쫏두어도졀져심에가득해
나이왕해략허여져싱이반슥되못허나엇지져주지심이
녕오리잇가왕이져 혼슨왈복인년은이영열허나복이
슈히오라ᄒᆞᆫ이옥랑화를다가곤을구의에근난헌이열당
을쳥허여허되을불이ᄇᆡ거문드을허방장작이허러을
열왕이흔연왈낭쳥이허ᄃᆞ리회을곰주초되초헤는
도허나낭쳥이낭연소왈쳥은드리거싱조흔후빅슨여
의허다ᄒᆞ니남려섬체가져변슨방의쫏드다ᄒᆞ니이는셧
ㄷ헌일은이화장셩여나물엇거건번허더이가아조의츰번
귀흔은영화조이도라도물졉작허난ᄃᆞ로낭낭을쳥ᄒᆞ
여변화ᄌᆞ상동ᄃᆞ려은미어다왕이낭낭다려왈낭셩의
량즐허믄남려량허여못허리로다허여라사의긔결난
의황현의드려가바로을녀의이로니각오부비

반려화우초안채ᄃᆞ득긋기물이거재못ᄒᆞ여앗슬ᄂᆞᆯ
쇠난지졀칼ᄂᆞᆫ슈ᄒᆞ여나덧ᄃᆞᆼ부의거샹이나부러ᄂᆞ리ᄒᆞ
보ᄅᆞ라ᄒᆞᆫ배을가리관쳔의ᄉᆞᆯ을잡고죄인의ᄂᆞᆯ롱ᄒᆞᆫ더불
사랑ᄒᆞᆫ여ᄌᆞᆯ여날을ᄉᆡᆼ육지ᄋᆞ녀ᄒᆞ여셔ᄉᆞ나졀연거셤이ᄒᆞᆼ
상경쳔보의재미엄담이제ᄂᆡ글볼녀보을볼ᄂᆞᆫ편
ᄂᆞᆫ이방불되기더욱반갑고라이와문하을부ᄅᆞ니운ᄃᆡ
떠ᄅᆞᆨᄒᆞ여고ᄉᆞᆫ슉ᄋᆞ우라ᄂᆞᆫ당죄곳ᄒᆞᆯ톳ᄒᆞᆯ더라라일이다ᄒᆞ로
ᄂᆡ샹이ᄂᆞᆫ쳔쳥의관과ᄒᆞ엿다ᄉᆞᆫ을몬무초빗이실셔나인ᄒᆡ
쟝욱의ᄃᆞ려가운ᄃᆡ헤쥐ᄉᆡᆼ각ᄒᆞᆫ바업시ᄒᆞᆼ굴평결의
몰볼가졀이라일련의쳘리강ᄒᆞᆯ나시ᄅᆞᆨ의ᄀᆞᆯᄋᆞ샤장졍
난인의기ᄒᆞᆫ다로ᄃᆞᆫᄒᆞᆫ줄너흐ᄅᆞᆼᄒᆞ여너광ᄒᆞᆫ온갓의ᄀᆞᆺᄒᆞ여오졀션
운탐화로함방ᄒᆞ고부라을보이실쉬되ᄂᆞᆫ거그게된
왼볼부지리잇ᄂᆞᆫ고여ᄂᆞᆫ다시ᄌᆞᆼ시ᄂᆞᆯ시ᄒᆞᆼ좌파ᄒᆞ여ᄌᆞᆼ셩

이운션을 ᄆᆞᆯ 즐며 쳥샹은 ᄇᆡ울 것고 ᄇᆞ로 궁을 갈의 ᄂᆡ로
로ᄂᆞᆫ 살이 ᄇᆞᆯ각치 ᄃᆞᄒᆡ 왓 혼심을 맛치어 ᄒᆞ위 광칭을 ᄂᆞᆫ
지라 연ᄒᆡ여 다 원ᄃᆡ를 연ᄒᆡ여 옥술 ᄉᆡ드시 맛쳐여 뎐
복이 자로 동ᄒᆡ여 샹이 ᄃᆡ괴ᄒᆡ 수왈 광셩이 ᄆᆞᆫ옥 복흥을
ᄃᆞ 복녀 모롱ᄒᆞ니 나라의 보리ᄅᆞᆯ이 오족 쳑지 시혀라 ᄒᆞ시ᄃᆞ니
라 장원을 ᄒᆡ이사 ᄆᆞᆫ무 장원을 오ᄆᆞᆫ 무신방을 혼ᄌᆡ로 ᄇᆞᆨ
로 ᄉᆞᆫ너 화평 삼을 ᄉᆞᆫ겹ᄒᆡ 실셰 ᄆᆞᆫ라 옹방의 제일인 양장
션이 올ᄒᆡ 이션의 낭경 셩ᄒᆡ 샹의 소랑ᄒᆞ미 ᄂᆡ소 옥경ᄃᆡ
자 올 호방 장원의 낭광 셩이 올ᄒᆡ 이ᄋᆡ 병경 ᄒᆡ샹의 ᄒᆞᆫ
비념이ᄂᆡ ᄆᆞᆫ 경은 쳔흉의 은은 올 비령을 ᄒᆞᆫ 은ᄃᆡ 저ᄂᆞᆫ
러라 낭장 셩으로 ᄒᆞᆫ 념ᄒᆞ신 ᄃᆡᆷ 우령낭을 ᄇᆡᄒᆡ 시ᄃᆞᆫ 낭경
셩소랑 ᄎᆞᆯ은 곤ᄂᆞᆫ 뎐ᄒᆞᆨ 순을 네ᄒᆡ 시ᄃᆞ 낭ᄒᆞᆨ 순을 ᄂᆡ 셩ᄒᆡ
별노ᄒᆡ 이셜ᄒᆡ 손 그년 소지ᄒᆡ 올ᄂᆡ 옥ᄉᆞ랑ᄒᆡ시더라

이ᄯᅢ황휘뒤양장셩여봉ᄒᆞᆫ광원이물르르시고
그거듁이여가슌왈이는뇌슌셔라ᄒᆞ시니진뎡이ᄏᆡ비셩녀
호옥으로ᄆᆡ여ᄡᅡ이잇는지라상이낭장원형체울염홀
젼으로영시ᄅᆞᆯ소뇌욱ᄒᆡ시어비빈궁ᄂᆡ모여가르치칭찬
ᄒᆞ며왈옥쳥도ᄒᆡ거니와안모와도을평이난셜라ᄒᆞ
흠숀ᄒᆡ여ᄀᆡ이여칭찬ᄒᆡ려오늘은상궁이왈그ᄃᆡ는
난셜반보드연왕소시젹은몰보로다가는시터엿라가연왕
룡라시의국령ᄒᆡ니그ᄯᅢ연왕욱모룡회동랑ᄒᆞ여뎌
낭인라항불ᄒᆡ러발쉬뎌련거는울록어가룡울이
이욱여유시며옥시는조이ᄒᆡ휘갓가이연쥴순당ᄒᆞ사
왈녀부쾌국가의뒤궁에잇더니뇌형체로변ᄒᆞᆫ죄
ᄒᆞᆯ나여룡은진흉ᄒᆞᆫ여숙기을로오라나온이무복
ᄒᆞ여병울루러라이의퇴곤ᄒᆞ여병ᄒᆞᆫ을거ᄂᆞᆫᄯᅢ갈은본

을나올복외이르니올순복벽되희해여낭은외손을
잡고슉곳기쁠이저지못해더라삼일욱라을맛고상초
허여곤칠해기을쳥해니상이윈흉야라황숑해열을
순흥태사윤을보시니시러구의장니혐러훅훙이길
을명해빗난외외을희아흠양해리다보희쳔훙더
빌은왕이벽곤을보셔훌휘구외연셕월벼리시며
퇴욕인니낭복삼낭으로기라다되다가낭이여훙혀
퍼펴곤해고부왕거뵈온두태순이낭순의손을잡고미ㄴ니
욱운데거당의드퍼와로보거뵈온니봉인아너훌만퍼왈네
비히을굿게너여연화을보지못할가흣엇더니외라면
가피볼하연퍼극진해니으로케희을순상해미온해여들기
더라희린금백을기너이원야금을후실해고삼일을을
물기너라일ㄴ은왕이우훈복인침실의이르너부

인이조용이발ᄒᆡᄃᆡ편셩이비록참방ᄒᆞᆫ엿시ᄂᆞ연
목ᄒᆡ고아져본화이미셩ᄒᆡ나셤년발뷔울너대한왼
동ᄒᆡ여여지식을날니미초를가늘니이자용이리봉
완북의ᄂᆞ탕의조그릐ᄒᆡ여황샹쳔위을엇지분ᄒᆡᄂᆞᆫ가즐
낭이다ᄒᆡ고손운누의이동ᄒᆞ난셩이쟝형을ᄯᅢᄃᆡ고벽으로
손의변쳐을가다희거ᄂᆞᆯ왕이ᄌᆡ평후ᄌᆞ왈난셩의ᄏᆞ은
ᄒᆡ미그ᄅᆞ도다승평씨의녹도상ᄂᆞ의변새ᄂᆞᆫ부엇ᄒᆡ리
오난셩이ᄌᆡ왈인복ᄒᆞᆫᄃᆡ연클욱근수련남의이ᄆᆡ시와
손방의쓪록ᄒᆞ여엇지ᄒᆞᆫ갓조려본장이ᄅᆞ롯광ᄒᆡ리인
근심통ᄒᆞᆫ본의공을조화와ᄀᆡ평ᄒᆞᆷ변을무불ᄒᆞᆫ지ᄒᆡ
여아남ᄌᆞ다ᄅᆞ리ᄒᆞ여엇지셔ᄒᆡ빈보아누ᄂᆞ지옥고근ᄌᆡ롤
ᄌᆡ엿자왕이미ᄉᆞ부럼이ᄒᆡ리엿ᄃᆡ쳔히초옥이영변ᄒᆞ와
녀의ᄉᆞ방의일이여ᄃᆞᆫ벽찬이낙녕ᄒᆡ여조정의상우영
ᄉᆞᆫ보명이ᄒᆡ이ᄒᆡ고방벽츄련을복ᄒᆡ리ᄒᆡ도이른삼우ᄃᆡ

셔간의공셤이다일은샹에후원의허은시졀을리이
은샹화츌시더니초왕의츄회온젼의을은원기진왕
화견이진왕인슈을밧쳐흐슌직허엿다가다시초왕을
분허온왕어공죽와삼지비초초국은초깃더이샹셕옹젼
녀울은니샹이졀ᄒ학슈초쎠히셔여지리
초왕신화진은쳐허뷔욱너슌평허드소녀목비하여
허졀이츄은리기지견을뱝허녀오근을션치그평세
군허옥초국장현을오뿔가양이오다뒤근을조말
츌여싹지허초셔젹평을향지허온허허임이홈
온이셩허너재딱이리연츌그츄허졍영이라ᄒ슌다츌녀여다
샹이츌나슈쳐지신을오너논허신샤츌이를보연왕을병
츌시되연왕에아근을공부시어려샹초고쳐군더녀쳔
셔츠허을쳔허너왕이항안을버허을츔드리간츄

니쳔궐이라다가
쥭가의뎌셔잇셔졍이아니면외은지못하리니밧비입
시하뎌흉난셩라타뒤하다플너계시니
왕이뵈이옵기을밧ᄀᆞ난셩다의눈하니난셩월상증은
셧거ᄀᆞ로쳐하셔ᄂᆞ니인ᄂᆞᆫ왼월은병을불갑거시왕이라
급하샹령으로쳐하그리난셩월날이뢰몰엿시니면일
말퇸하ᄉᆞ이다이되왕이양당뫼이슌을드하드월날
셩을하뒤회와플시니반리세변하뫼일이여시미리면
국자하여시쥴지변은안인아뻔한뫼일이잇셔즐젼지
평이면식국자시에잇재슈양하재온다ᄯᅳᆫ변을하의나
축이불효막대죄ᄉᆞᆯ이라퇴궁이축연왈ᄂᆞ뷔근간벌약
하여오뤄셔나게어데옥슐졍지장에일은쥭죄이라삼가
쥭은을분명하뫄왕이승명하ᄂᆞᆫ명로의발힝하졍하여하
편현뒤상에어함에나죄슨반게서는안식으로말이는뒤평

복르는 국순 대연즙 해므로 황황이 불으니 대왕이 돈숙
죽왕을 실어 불충타와 죽기를 잇서 물방 녀여 부지
태엿 숑동이 호왕의 소회을 으다 줄온어 목숨은 운연이 네
가상이 호왕의 혈후상소을 보이시니 왕이 박숭와 보
드셩각태대낭방은 쾌어 거저렵드로 국은 막강재국은
호숙일지니와 오응을 취쇠 일어다 태어 평쇄 즐하오다 이연
죽왕은 호국은 남방변 저파 국왕을 소호국이 못해을 재어금
일분복을 모아 방아울 복호이 가혈 가즐 너어 다 상이 와온
태시어 원념각 노쾌 궤상이며 붑 부리단이 일시의 고변을
일왜 이업 조해너와는 혈을 셔 황각녀 국왕을 패은 오련근태
국을 국사혀여 발병해여 붑래혀니 가혈 가즐 너어다 올
각바 국왕은 방즁 호혈의 장래 녀슌어 각별혀인즐 사
소국거 혜녀 제해 소셔 녀왕이 국왕을 호국이 목데을 숄
상뢰 붓혀 옥누 ㄹ드로 장국이오 남방 호즁의 이약을

지어 필병을 조허여 ᄲᅡᆯ니로 발허면 ᄲᅵᆫ심이 소홀ᄒᆞ오
리니로 용이 필병으로 족청ᄒᆡ 만거나 허로 환병이라 ᄒᆞᆼ 쇠허
여 귀이가 헐가 허ᄋᆡ이다 녀필흥이 족될 ᄯᅢ 강을 주허실
진지 연왕이 너 번 도럭 ᄲᅡ기 너 ᄯᅢ 울가 슬 너히가 상이 한글
순될 연왕이 눌 근 부모을 위허더 힌 나의 도라가 ᄯᅥᆫ 울
로 조구리 기울 일허 엿ᄂᆞᆫ 남 밀의 노륵허 엿시니 ᄯᅩ 엿재촐
전을 ᄲᅡᆯ허러 ᄂᆞᆫ 소상쇄록될 청교지당허 시야 남 ᄆᆞᆫ
강형이 ᄂᆞᆫ 정으로 당허 못할 저라 연왕을 국은을 밋
기슨 난생루조한 가저가게 허소쇄뇌 현흥이 족될소
옥경의 ᄲᅡᆯ숨이 ᄆᆡᆫ 절지 ᄭᅦ나이다 ᄲᅡᆯ일 연왕 난셩이야
나가(변)로 국운 체허의 드신 비이어 소가 졸 나이다 ᄒᆡᆼ사야
연왕을 보시고 의논허 허사 ᄯᅥ어 반복즁 일뇌 수연
이 졸 반죽 실이 비록 연옥부허 허오나 아이을 치신
허여 일지병을 빌ᄂᆡ이 연 남만을 필젼ᄒᆞ로 되 필은

을만보지 일이 ᄯᅢ로감ᄒᆞᆫ을 가를 ᄂᆞ어다 ᄒᆞ나 보다 보니
변여백옥이 ᄂᆞᆫ 발근ᄂᆞᆫ 라가ᄂᆞᆫ 눈셥이 거상이 당ᄒᆞ야
내현 냥화ᄒᆞᄂᆞᆫ 양장 셜이 져 상이 ᄒᆞ경ᄒᆞ니 연왕다려
일도 순ᄒᆡ 당의 어ᄉᆞᆯ이 유혼제 별의 졸편ᄒᆞ기 올원
ᄒᆡ이지ᄂᆞᆫ 박녀무ᄒᆡ 련의 옷의 엿더ᄒᆞ고 뵹이 조왼ᄯᆡ
거현ᄒᆞᆫ 시이 셩죡의 장발ᄒᆡ 신몬ᄒᆞᆼ을 남산와 국은을
조보ᄉᆞ래ᄂᆡ 음은 잇ᄉᆞᆫ 온나 비녀셔 셩의 옥치 롱몽니 화
솔근 리장을 밧기시 ᄅᆞᆫ 조평의 옹인ᄒᆡ ᄂᆞᆫ 비의 솔로 ᄀᆞ리
쾌이 잇실가 ᄒᆡ 나어다 연비의 황봉이 얼장 소을 울ᄂᆡ니
ᄂᆞᆫ 난셩ᄒᆞ여 홍흔 탈의 호로와 상이 쳔ᄒᆞ화 순조어 ᄒᆡ시니
실형 홍흔 탈은 백계우 싱셔ᄒᆡ 안나 ᄂᆡ 졸이 낭ᄇᆡᆫ감
거래 국혀 ᄯᅡ 셩족의 섬옥을 로ᄉᆞᆫᄒᆡ 신ᄉᆞᆼ의 진술로 보려
올ᄒᆡ라 당지 ᄒᆡᆨᄒᆞᆫ다 ᄒᆞᆼ지 조빈이 각ᄒᆞᆫ 식을 ᄒᆞᆫ

거텨여주가의간셜지신이자녀흑괘의슈고트
다양녀혀논그슌엄스미라신쳠에본데로박쳔롱으
로쳔죽의은칙을임슌와복지주혀오나비록수에
갓든몬어각혼미음이나엿지셜은올다감홈쏫지
념은오디잇가까논조령의일디어녀즉변충쳔
이되죽슈쳐라고로홍심을본발귤여미거련손식
을쳔혜의밧치오녀복원셜상은변될지혀눌혀
거의죽슌올그릇쳐지이얼가눈나야장셩이나여
어리나어련쳐붓혀병쇄을비와과쳔함벌의로박을
쳠작든쳔몽지리의집작는비밋쳐근지변정의지아나
리올지니조먀은미복지롱이올흐옹련츈은쳠에당
되못혀오련나실신죽남밉은근심쳐이얼거시오나실쳡
이일뵐의심되오(면)손시을쳔거귤오(녀)손지의볘엽

되잇가 쳡이 ᄒ욕것치 ᄯ든ᄒ온 물부지일을 우련ᄒ
여종임을 ᄭᆺ기ᄒ채ᄒ라 잇든 쳘운이 일신의 ᄭ고 감
ᄉ울 바울 아지 못ᄒ와 ᄂ식으로 뮈신ᄒ여 강ᄉ오ᄅ끌
온ᄒ 효본낭ᄂ 몰ᄶ은 세ᄃ장 종으로 신ᄒ평의게 검출
출을 베ᄒ와 ᄭ부ᄃ량지ᄉ이 잇ᄉ온ᄂ 장셜ᄅ가ᄭ 셜
시변ᄒ 공을 일을가 ᄅ난이라 ᄒ벗더라 쳔고라ᄉ일
공시상이 ᄯᄒ 회ᄒᄉ 왈 흉흔ᄒ샬ᄂ씨고 뫼추지 십이ᄉ쇼
ᄉ울로라 보지 아ᄂ은 ᄃ이 울ᄉ은 여ᄂ츈시ᄉ쇼ᄒ니 거ᄃ지여
ᄐᄂ 재ᄅ믄 ᄭ여ᄂ 모라 낭ᄒ의 홍병으로 지인지 감이ᄅ
병ᄒ되 ᄂ다시 의심ᄒ되 모ᄒ여ᄅ 한남ᄒᄉ 난졍 셜으
물ᄲᆼ 복상셔 평ᄒ원ᄉ 쳐울 비ᄒ시ᄅ 호본낭ᄂ문젼
으로 ᄏ로장은 검복ᄋ긴 ᄉ울 비ᄒᄉ 금로ᄅ검ᄒ면ᄆ
황ᄋ을 ᄂᄃᄂ 삼일 ᄇᄅᄒ사로 ᄉ이년 왕이ᄎ

왈신한 목다 한비렴은 용병이 졀륜ᄒᆞᄃᆡ 병법이
능통ᄒᆞ여 운듕군 계ᄒᆡ 조혀 상이 외운ᄒᆞ여 손동낭듕을 미ᄒᆡ
시여 시의 불목 빈달이 ᄑᆡᄒᆞ여 여양 원쉬 부즁의 도라오
니 졔병 졍졸이 돈편의 귀혹ᄒᆞ며 ᄯᅥ 장ᄉᆡᆼ을 기다리더
니 불평을 시년 십팔이 오 한비렴을 상이라 원쉬
한비렴을 좃 힘쇼 소ᄇᆡ을 삼이 변일 된군ᄃᆡ ᄒᆞ라ᄒᆞ니
병을 나뢰ᄃᆡ 게강에 ᄃᆡ려 가 반당을 ᄆᆡ셔 공평을 의논ᄒᆞᆫ
셔왕 왈 병넝을 쥬이 ᄲᆞ냉 반통쇽에 변셔 부공ᄃᆡ 너 경
텍지 ᄭᆞᆯ은 월ᄒᆞ와 셩병이 무비 평졍ᄒᆞᆫ ᄒᆞᆫ상과 실쇽을 삼
가ᄃᆞᆫ 올ᄃᆡ 뉘 무조강 화계ᄒᆡ ᄒᆞ 원쉬 니ᄒᆞᆫ 티쇽 병이라
난셩이 육을 조종ᄂᆞᆫ 병셔를 보더니 왕이 드려 와 보ᄂᆞᆫ ᄉᆞᆯ
어편 계쇼 조록이 ᄒᆞᆫ계ᄒᆞᆫ 목산 물제을 가는ᄃᆡ 라ᄒᆡᄂᆞᆫ 날
난병이 ᄃᆡ원 아돈 ᄃᆡ장ᄂᆡ은 ᄒᆞᆫ평이 당ᄒᆡ 꼿ᄒᆡ 되니 ᄒᆞᆫ 심치
엿ᄂᆡ나 조별에 거ᄅᆞ 군평이 ᄒᆡᆼ돈ᄃᆡ 용손 되얏더니 슐쇽이

뒤라 혈가 근심에 줄술에 다 년이 와 왕 쉬 드려 와 오 친게
드왈 휘외 맹일 발근 코퍼 려난너 휘일 언을 가르치
지인 너사닝너 가만 셩이 초왈 네좋시니 모을 따너 좋하
나어저 말을 좋을너 잇시려오 원쉬러 석드왈 쉬너
속불 좋너 보친되 병러시 불ㄷ지 닝너 퍼잇가 저고려서
변병 심불 망려되에 다난 셩이 옷ㄷ 변왕거ㄷ 왈근야
석에로 ㅎ너 아좋로 독왼닝 가월랑을 보시니 엿더허나
잇ㄷ 왕너 봇ㄷ 아좋와 원좋되 일을 이뼈 보좋이라 일
출병왈 이당 쥐을 좋을 너낫 갓커 출난 셩이 씨검을 출
좋이 화림간의 독어 바쥐을 왕네려어 ㄴ본드 극한되엄
엄드일로 좋이락 ㄴ울ㄷ울너 파제독굴 쉬어 본ㄴ이 북엄
여러려 저너 왕이 원ㅎ다려 왈어 모의 검술이 그저 잇오
다허려너 문독일지 부ㅎ 검이 날아난 부가 저을

취평연한갈소위나여가지우회일쌍곤대놀나옴
으로날아가셔부용검이또나려와등을박ᄎᆞ거ᄂᆞᆯ그졔
더욱분노ᄒᆞ여날아가셔훌ᄶᅡ여동셔남북으로더조ᄎᆞ니이날
에야문득무숙북동강이곤충의가득ᄒᆞ여상하ᄉᆞ방의
별ᄀᆞ셤홀연ᄒᆞ여그곤ᄃᆡ갈바을몰나울ᄯᅢ왕의앙희다
타ᄂᆞᆫ왕이웃ᄃᆞᄉᆞ치로가ᄃᆡ욱ᄒᆞ본ᄂᆞᆫ쳥이공총의ᄌᆞ
나려셔여왕을남반도젹으로인연ᄒᆞ여원충ᄃᆞ을눌ᄂᆡ
엇조다ᄒᆞᄃᆡ원숙다ᄒᆡ네ᄌᆞ다ᄯᅥ면남을보라원숙점연보
너남미다ᄭᅩᆯ훈ᄌᆡ이엇더다만쳔ᄯᅳᆯ은비갈ᄉᆞᄂᆞᆫ벌은봉황
이탁실병이ᄂᆡ비후빅만ᄃᆡ군이임ᄒᆞ여낫ᄃᆞ되ᄂᆡ려울
베ᄒᆡ돌ᄭᅵ엽ᄉᆞ그ᄂᆞᆫᄒᆡ음ᄉᆞᄂᆞᆫ법이오돌젼벤ᄉᆞ솔갈
범은ᄌᆡ죽박ᄒᆞ임범임여ᄉᆞ현이입저ᄒᆡᄃᆞ몽킹이이잇
ᄉᆡ로이ᄎᆞᆯ의ᄂᆡ셔다지못ᄒᆞᆯ지라그ᄅᆞ나ᄀᆡ편쳔의살

셩을뒤리려너방녕동이일변을샹지아녀본샹공의아
포시은비라이제무예병병이라인허여남시용괸을
빗슨와지와의포러가녀강뀐을빗슨살육은병기와주저
하쇼환션쥬되여남군의창션을살육하면홍의너너살
육을샹자ㄷ눈쉬울축장하파왼쉬샹매축변러라졔
샹일의횡군횔쉬샹이남포의편출하슌되ㄴ슈졔을
빌으져벼ㄹ연육장나을러육슨디하시더라주의남슉
하ㄷ군출이쳔쉐ㄷ각이쳬병하여샹이화동연하여슨
년왕다되왈샹쉬왜슨출이련에아뒤너포라출시며
화왕이부홍의포되와난챨더라왕금일쾰샹을도쉐
됨금쉬울븐ㄱ슨평이남슉쉬너쳬이에포당치못
할가슨느라난션이소이데왈샹슨이비연과션이보라
이잇쉬니장통되잇다슨시러니금일이야쳬여기가

로권준이나찻나이다왕이다스리더라화셜셰월로
왕이뎍셰즁히기로철병을ᄂ리히나소식은업ᄂ니
뒤쳐보히더쳑병ᄡᆞ히ᄇ병이쳐ᄃ자올에외쳐고쳬급히
다ᄒᆞ도뎡이ᄂ셤을ᄯ쳐션으로되ᄂ월남은국가흥
리화ᄡᆞ일덕하지못ᄒ면한뎐이뫼ᄒ피ᄅ엇ᄃ리면방
쳑이잇실이로히더뎍ᄉ히ᄂ시급히더나ᄂ을ᄒ이
게ᄂ왕셩으로논다ᄒ나왕이뎌평월ᄂ부뀌광외부강
쳑ᄒ더일ᄂ쳔ᄂ쳔을엇지죄ᄒ더로죄시ᄂ이ᄂ월왼쳔
본쳑쳔ᄒ불릇ᄃ이ᄂ옷가ᄂ쳡을지ᄒ더ᄂ쳘병을가
다되이울롤가ᄅ나이다ᄌ나거ᄎ쳡온ᄒᆞᆫ숙우ᄒ뇌왕쳔
샹이잇혀쳔ᄃ쳑화우와기ᄒ이셜남ᄒ더ᄒ뫈기ᄂ쳔ᄒ
라쳔ᄂ갼ᄃ히나지ᄒ어ᄒ고로근나에업스미로쳔이
갼ᄒ더ᄃ만신죽남ᄃ담스쳐ᄌ쳔롤ᄒ녀쳑병이ᄒ본

을희거늘황틱흥공축왈샹계에효유군즁호축쳘
울거아퇴북문을나와기슌션으로가졍텬이공셩
을밋쳐군냥보화을탈취ᄒ더니기승셩을에
외쳐수홀뿐이시셕을극듬ᄯᅢ근손을지퇴ᄒ여샹
일삼아을지휘ᄒ대젹장이용졔을쥬어셩퉁을겁
ᄃᆡ우어에외쉬ᄒ경셰쳠ᄒ위급ᄒ거라호용이어쳔한
될쥬일ᄂ흔죽게ᄒ시조다ᄒ근자이날게을나팔연
쇄호대ᄒ여호유순귀을내왕의손기을광아간일은쳔병이
도기을기다되숄ᄒ왕대을ᄒ여격졍몬을당ᄒ여거자희
나라셰의양일쥐션일벼로ᄒ여남으로된력ᄒ여젼ᄒ는바
의측호불범ᄒ여겨되리다송셜이ᄒ더라초국재
례의이ᄒ는ᄒ나이환난ᄒ여젹병리나잔ᄒ쥐을알재
라죠왕셩외이ᄒ여쇄평ᄒ샴경이라될셕은화

이런대셩봉이 열니ᄂᆞᆫ 젹병이 몰ᄂᆡ 취ᄒᆞ여 거ᄃᆡ ᄒᆞ되 동
해젼ᄒᆞ되 거출 원슈ᄃᆡ군을 볼나 진ᄒᆞᆫ 군조로 ᄒᆞ여 원슈가
ᄇᆞᆯ이 가셔 무톤 남녀ᄒᆞᄂᆞᆫ 왕쳥은 쳬 일은 인 만장아 오라 ᄒᆞ니
일리 ᄂᆞᆫ 공을 볼너 ᄂᆞ니 원슈 ᄇᆞᆯ은 ᄂᆞᆫ 쳔 조 구 병장이라
ᄃᆡ왕이 지금 여기 제 실여 엇지 ᄒᆞ여 셩을 일으로 ᄂᆞᆫ 공이
ᄭᆡ 울ᄂᆞᆫ 기ᄂᆞᆫ 쳔ᄉᆡ 쳐셔 나 젹병이 ᄲᆞ지 거만 병이 오 젹장을 ᄀᆡ
ᄂᆞᆫ 쳔ᄉᆡ의 일흉ᄒᆞ여 원슈 그 ᄂᆞᆫ 면을 숏혀 거울 속여 가ᄂᆞ여
왕쳔ᄒᆞ여 가 셩을 ᄶᆡ되 셩의 조제 말ᄂᆞᆫ 땅 안 셩ᄂᆡ의 엇ᄂᆞᆫ
ᄂᆞᆫ 울 일쳬이 장인 오ᄅᆞ서 견ᄯᅩ이 쳥ᄂᆞᆼᄒᆞᄂᆞᆫ 왕셩ᄉᆡ의
일오ᄅᆡᄂᆞᆫ 단연 젹병이 ᄋᆡ비ᄒᆞ여 ᄲᅧᆼ거ᄂᆞᆯ 쟉후ᄒᆞᄂᆞᆫ 군ᄉᆞ
을 일쳬이 남ᄒᆞᆼᄒᆞᄂᆞᆫ 쥴을 쳐ᄀᆞ ᄲᆡᄂᆡ ᄃᆡ칼ᄒᆞ여 ᄲᆡᆼ본을
맛ᄂᆞᆫ 셩상의 올나 궁시로 쏘ᄂᆞᆫ 크라 ᄂᆡ 물깐이 ᄊᆞ호ᄂᆞᆫ
쳬ᄒᆡᄂᆞᆫ 만ᄒᆞᆫ 속시인을 장이ᄂᆞᆫ 원슈ᄅᆞ시 ᄒᆞ평ᄒᆞᆯ

초왕이 가는 쳥와 왜캐 굴시다 ᄒᆞ니 곰아니 키ᄅᆞ이 탕나 ᄒᆞ
며 반패기는 쳥을 쾌ᄒᆞ되 왕셩을 치되 파ᄒᆞ되 사ᄅᆞᆷ광
온 근순을 노ᄒᆞ며 북을 쳐며 방포ᄒᆞ여 일시의 납함ᄒᆞ
니 철긔견등ᄒᆞᄂᆞᆫ 산쳔이 뒤켜는 듯ᄒᆞᆫ지라 쳑병이 도
방ᄒᆞ여 쳐되 진의 가변 진등평을 일ᄂᆞ니 ᄂᆞᆫᄒᆞ여 기는 셩
을 친다 울이 혁장이 왕셩식힌ᄂᆞᆫ 순을 ᄂᆞᆫ 순을 뫼아 순
초방비ᄒᆞ난 리자원쳐과 분평요ᄒᆞ여 ᄀᆞᆼᄒᆞ라 ᄒᆞ니 ᄂᆞ분
쟝이 왼ᄉᆡᆨ을 ᄒᆡ여 초왕셩 남문으로 헷쳐ᄂᆞᄂᆞ리 가ᄂᆞᆫ 셩
홍의 ᄂᆞ야 ᄭᅩᆺ병츅 ᄇᆡᆨ여 잇다자 난원쉬 쟉장의여 ᄆᆡ
울 버혀 북문의 달ᄂᆞᆫ 왕셩을 이순니 뎍장이 총주ᄒᆞ며
방비ᄒᆞ기를 극ᄒᆞ더라 원쉐ᄒᆞ 평활호 왕셩을 ᄎᆔ과
ᄀᆞᆷ봉이라도 ᄎᆞ차 햇시여 ᄂᆞᆫ 섭힐비여난ᄌᆡ라 빌기를 게
다 ᄒᆡᄂᆞᆫ 젼ᄒᆡ라 ᄂᆞᆫ 현이 쉬라 ᄒᆞ여 상ᄂᆞᆫ 쟝여 각ᄂᆞᆫ 강

못슬벗ㄷ셜봄을달반베혀이연ㄷ자이뒤베션이
상녀왈이뒤을타도방혀여파션을너매본권의가적장
뒤게ㄷ헌쥐책장이반션한의ㄷ녀형홍을츰연봉이쳘
석은회이헌쥐통축이회이혀ㄷ오회여잡든놋안쉬
라적장이뒤회혀여왈븡뱅이배롤아치ㄱ여스셔여닷
지나온최여의뒤호이뒤을타헌지을도초탈을획득퍼
풀ㄷ근손펼든반은기손평을데우게줄ㄷ반은호완션으
한혀여쳘든여션회여이초ㄷ방초헝어아배달쳐지장
이뒤도울둘ㄷ쇽지쳐왈쥐면복원츳나본연이여
혀기라된지오힘여적장은비갈을벗ㄷ파죄장이불
나라되여혀여여셔부으로문이열너여일원리장
이장휜을들ㄷ백셜을질너뫼롤뒤연휜ㄷ손아래
장녀거이슈여적장은닷피일나최여션자장여혀인쥬흠

나죽장이 쳐당되놋다 되난거라 난장이 쏫ᄂᆞᆫ 기ᄅᆞᆯ 쳥
하미이로려서 살펴여 갈라당을 변ᄒᆞ여 각ᄀᆞ슈쳔
거울배헌후로 당을 뫼ᄂᆞᆫ누써 산혜ᄂᆞᆫ 문방이 거역이라
쪽짱은 만산쳔야 허여 흙ᄂᆞᆫ 듯 퇴롱ᄀᆞ 휘ᄂᆞᆫ이 네외 ᄉᆡᆨ
난지라 방장이 쉬 초ᄅᆞᆫ 당보ᄆᆡ 욀우리 ᄉᆞ년세거 ᄌᆞᄅᆞᆫ당거
빈빗ᄂᆞᆫ 깁히 드려 왓시니 엇디 쉬 인게 술모ᄅᆞᆯ 네모ᄂᆞᆫ ᄆᆡ
졀이 쉬 ᄒᆞᄃᆞ니 난ᄃᆡ 턱장이 밀ᄃᆞᆯ 네오 네와 네왕ᄂᆞᆫ ᄇᆡ장
은 휘ᄃᆞ 지방의 ᄃᆞ랏시니 항복ᄒᆞ다 ᄒᆞ니 거난장이 쥐ᄒᆞ
쥐녀 ᄇᆡ녀 신화 십녀 ᄒᆞᄂᆞ 뇌ᄇᆞᆯ 불ᄉᆞᆫ 복ᄃᆞᆯ 녀이 ᄒᆞᆨ장
은 병ᄅᆞ이 ᄒᆞ소 ᄋᆞᆯ지 ᄒᆞ고 옥ᄒᆞᆯ 이녀 ᄒᆞᄂᆞᆫ ᄃᆞᆫ 휘ᄋᆞᆯ 소ᄆᆡ
일정은 회ᄒᆞᆷ 강빅이ᄂᆞᆫ 형이녀 ᄃᆡᄌᆞᄋᆞᆯ 소ᄃᆡ 소ᄋᆞᆯ ᄀᆡ
난여ᄒᆞᆯ이 경ᄅᆞᆫ 신광이 심ᄒᆡᄃᆡ 쳐녀오 ᄌᆞᆷ이 ᄒᆞᆼ이 쳔ᄉᆞᆨ
을광ᄅᆞᆫ 회ᄒᆞᆷ장ᄋᆞ 녈ᄅᆞᆫ 숨이 불ᄅᆞᆫ 오ᄃᆡ 심의ᄋᆡ 오낭ᄅᆞᆫ

너이 황괴와 싸와 숙장을 소슈ᄒᆞᆫ 보ᄂᆞᆫ 당재 ᄂᆞᆼ이라
나라 ᄒᆞᆫ 남장이 혐을 ᄯᅡ ᄂᆞ려 ᄯᅥ지 칙ᄒᆞᆯ새 장검은 승ᄃᆞᆼ에
나봇 ᄃᆡ 벽력이 부ᄂᆞᆫ 듯 ᄒᆞᆷ셩은 쳔지진동ᄒᆞ여 벽
ᄆᆡ 번게 ᄀᆞᆺ치 호왕이 기간 셩남 북누의 올나 ᄂᆞᆫ 쟌 승쳬
을 주겹ᄒᆞᆯ셰 적장의 홍녕ᄒᆞ뮬 보ᄂᆞᆫ 듯 ᄒᆡ 웨 왕이 황
왈 우리 쳔명이 승쾌의 달넌더. 술러 ᄒᆞ사 긍이 어우러 져
싸와 불분 승부ᄒᆞ니 소올 재 도ᄒᆞᆷ을 더 ᄒᆞ라ᄂᆞᆫ 발ᄭᅦ ᄂᆞ ᄒᆡ 죽ᄇᆡᆨ
으로 ᄒᆞᆫ 비 ᄂᆞᆷ의 ᄐᆞᆫ 살 ᄆᆡ 지ᄂᆞ니 죄 ᄆᆡ 비 ᄂᆞᆷ이 발ᄂᆞ니 ᄯᅢ 제 조ᄒᆡ
텨 리ᄂᆞᆫ 희 슉호 상셩 내 ᄒᆞᆫ을 야 쳔 ᄒᆡ 니 흑 지버 ᄭᅥ리 ᄒᆡ 강
호셔 빈 ᄒᆡ 젼 ᄒᆡ 을 ᄶᅵᆨ 에 ᄎᆞᆼ으로 ᄂᆞᆯ ᄂᆡ ᄃᆞᆫ 거 쳬 ᄒᆡᆫ ᄌᆞᆯ을은
둘 듯 호 죽는 실이 ᄐᆡᆷ 상의 ᄯᅥᆷ 하 ᄒᆡ 보이 아 뭇 불실 쇽 글 더 실
이 ᄃᆞᆫ리 ᄯᅡ ᄒᆞᆫ 손 ᄭᅵ와 칼을 빗 ᄎᆡ니 ᄒᆞᆫ 손 ᄭᅴ 일ᄂᆡ 변 식 호의 명으로
살을 ᄲᅢ이니 ᄎᆡ 승은 ᄂᆞ 싸 ᄒᆡᆫ 이 더 ᄒᆞ라 ᄆᆡ 몰 ᄂᆞᆼ이 ᄒᆡ ᄎᆞᆼ 강을

리로되ᄒᆞ다가 최즁강이 칼을 바다녀 본영의게 드러친
되녀 본영ᄃᆡ 후가이 황앙즁ᄂᆡ 칼솟는 병이 ᄂᆡ드러온
리파 초왕이 바라본ᄃᆡ 뒤편ᄒᆡ ᄂᆡ볼 쳥연이 ᄂᆡ튝고 못ᄉᆞᆯ
내광활ᄒᆞᆫ 연고ᄒᆡ 대운ᄒᆡ더니 다시 변ᄀᆡ왈 ᄃᆡ왕은 ᄎᆡ고
오는 즁물 보초ᄒᆡ 통난ᄒᆞᆫ 이승니다 ᄒᆞ며 로ᄃᆡ 보니 슬연쟝
이흉ᄒᆞᆫ 즁갑으로 ᄇᆞᆨ봉검을 들고 나온ᄃᆡ 시달며 으별
갓흠ᄒᆞᆫ다 ᄲᆞ이ᄋᆞᆼ 굴의 연ᄆᆡ룰을 ᄒᆡ여 살기 ᄎᆡᄃᆞᆯ이
웅ᄂᆡ 초ᄋᆞᆼ이 ᄒᆡ물이 ᄒᆞᆫ칼 ᄒᆞᆫ날이 살ᄂᆡ시 되ᄆᆡ 난ᄒᆞᆫ ᄂᆡ오론
즉도ᄎᆡᆨ을 즁심ᄒᆡ되 ᄂᆡ즁 ᄎᆡ강ᄂᆡ라 ᄀᆡ뎌ᄀᆡ왈 보ᄎᆡᆫ은
다ᄉᆞ 보초ᄎᆡ되 보는 안쳥ᄒᆞᆨ의 방불ᄒᆡᄂᆡ 볼즁ᄉᆡ 그ᄃᆡ
뢰길ᄂᆡ 남즁의 ᄀᆡ시ᄋᆞᆼᄂᆡ 난ᄒᆡᆼᄒᆞᆨ이 ᄇᆞᆫ가 즐ᄂᆡ다로 ᄉᆞᆫ니다
시보ᄃᆞ ᄃᆞᆯ삭ᄂᆡ라 ᄆᆡᆼ쟝의 아ᄌᆡ 쟝쳥이로다 ᄯᅩ 평녀쟝 ᄎᆡᆨ녑
손ᄒᆞᆫ 엇지 ᄂᆡ린ᄂᆡ ᄒᆡ물 ᄀᆡᆼ ᄎᆡᆨ물 상ᄋᆞᆫ 즁ᄃᆡ따 나ᄒᆞᄋᆞᆫ

되ᄃᆡ도보ᄂᆞᆫ낭경은쇄로거ᄉᆞᆯ드미갈노ᄂᆞᆫ법을보
타허비난쇽의장은복운평을흑흑여주어박히
돌려여홀연우슈복운경이운동외난이흑금강외게
다ᄒᆞ야드러가니금강이 [illegible] 천의손슈갈을빗ᄂᆞᆫ체ᄒᆞ지왈
쉬와쇽복운경을증즉의더지더니흑금강의세디ᄒᆞᆫ더
지난리라소울지ᄒᆞᆫ손이을베티ᄂᆞᆫ원쇽의게달이든ᄂᆞᆫ원
쉬갈을리독ᄂᆞᆫ빗ᄂᆞᆫ을들어다나다라ᄂᆞᆫ굴을거흉흉가며
우레갓티소리되며일을병맹운닷지아ᄂᆞ다ᄒᆞᆫ번쉬화히
금강의원쇽을가릅ᄒᆞ리라원쉬드리보ᄂᆡ송앙올필벌앙
방오랑리라쳔명을몰ᄂᆞᆫ흉체운빌을군량ᄒᆞ여보ᄂᆡ거
비괴심으로니엉ᄇᆡᆼ을빌ᄂᆞ니나ᄃᆡ황복ᄒᆞ라ᄒᆞ여ᄂᆞᆯ
니외흔도ᄂᆞᆫ실ᄂᆞᆫ에ᄉᆞ불ᄒᆞ기ᄇᆡᆼ목을비수게ᄒᆞᆫ나아가ᄂᆞᆫ
거러ᄒᆞᆫ도말광아가ᄋᆡ젹리에소랑ᄂᆞᆫ의파란괴빈단이ᄂᆞᆫ장

구ᄒᆞ여 ᄒᆞᆯ돌ᄒᆞ 젹시여 산의 ᄒᆞᆯ속셩ᄒᆞᆫ이라 ᄇᆡᆨ한 졍병
이퇴 반ᄒᆞ니 ᄒᆡᄒᆡᄒᆞ여 화시고 왼이 ᄒᆡᆼ상의 ᄒᆡ바리 보고 심
니의 ᄯᅳᆺ즁ᄒᆞᆯ 장현이 비범ᄒᆞ믈 아랏시나 쳔지 ᄯᅳᆺ을
빙ᄒᆞ여 기모지통이 잇도다 이의 셩본을 흐리ᄒᆞ고 슉ᄒᆞ
ᄲᅧᆼ올거나 ᄒᆡ셩의 ᄒᆡ와 ᄉᆞᆫ흑을 ᄲᆡᄂᆞ고 ᄋᆞᆯ 잡고 흔연 왈
너올ᄂᆡ 별ᄒᆞᆫ지ᄒᆞ샤 초ᄅᆞᆯ 필ᄇᆡᆼ이ᄒᆞ믈 ᄒᆞᆨ소ᄇᆡᆼ을 치ᄒᆞ
오난이 흉일시상 빈은 ᄒᆡ외로라 이와 ᄒᆞᆯ셩문인을 못ᄒᆞ 왈
젹병이 물너갓시니 광간이 셜ᄒᆞ여 순중을 진평ᄒᆞ고
젹병을 ᄒᆡᄒᆡᄒᆞ니 이닷ᄒᆞᆼᄒᆞᆯ가 호노라 ᄒᆞᆫᄒᆡ기 쳔셩의로
리가 ᄇᆞᄒᆞ파런 후로 왕이ᄒᆞ온 ᄎᆞᆫᄒᆞ날ᄅᆞ이 ᄇᆞᄅᆞᄒᆞ여
ᄒᆞᆫ신의 ᄉᆞᆯ귀ᄒᆞᆫ비 ■모의 닛더ᄂᆡ 쳔은 니ᄉᆞᆼᄒᆞ시고 ᄒᆞᆫ슉
의ᄒᆞ픔으로 ᄂᆞ주을 구ᄒᆞᆫᄒᆞ여 도ᄉᆞᆫ의 ᄒᆞᄂᆞᆫ 셩녕을 건지니
그은ᄒᆡ을 도보ᄒᆞᆯ 바을 아지 못ᄒᆞ리로ᄉᆞ 한ᄉᆞᆨ흔

년사발곰일과하니 운쳥의 은덕으로 귀왕의 용
부이라 울혀 언지 감당하리잇고 호왕이 예오혀 더과 당이
원숙의 손을 잡고 일을 변쥐인은 쳔왕의 쳥복을 부
리거놀 리인은 불니혀여 변혀이로던 연도로 다시쳐로
외나와 혀다 숙보을 당혀여 그이되 궁을 쳐우고 국가의 욕
군혀니 낭혀 왜거든 숙을 불위ᄒᆞ해노가 이체 조혀의에
당이 반운 곳 심혀여 왼쳐 우이제 쥐 (씌)물와 일너 시기를
울버이 귀색이 을세에드는 탕불 록에 빈되 을조리 본라
혀여 순음나 적어을 장이로 못혜면 도라가 그이와 혀나이다
나이라 혀더파 이어일 좋얼피을 고ᄉᆞ이로 혀장편의 엇네고
일너왈 황명을 받는와 장벌혀지더을 향복받는혜적
오호당초도지이니 혀흉일너을 방초혀여 도라가 적공어
퍼열니라 시쇼 호피가돈나이와 큰응을 틸던호하 글민

거술군으로쥭육을내여벌비여즁군지순회하로가여져장
이된슉의쳐지장노은늘보로간려여달손올지곤벌가툰
장쉬여술장아노으시어업지하시신록얻어도닛하손올로
의와홍온치술홍칠음하여시너방온왕하여려유뎍으
도향복으로하노매순둔을라이운싱니픽하다즐더라노
시쳑장아젼에쥐군을거두어본진의물러와조순황을조
인라뒤쳑헐방아울의논하더니소울리도파오내리희하여
익일왕셰싱하의진치로쇄홈을조로내원쉬내한낭광을리희
하여왈쳑지의일더도순잇혀오술이비상하다하여복국진
을회방비하로동졍을보아운변하라하며덕진의북초
키진동하여일지홀비텽괴황갑으로삼드되이나아온여일
난거의일위표인이단좌하엿시며얼굴건곡으로안뫼벽옥
갓드는셜이톡로며션동조굴이라원쉬이윽이보다

셩각과뎌비슷ᄒᆞᆫ인물이고ᄅᆞ지ᄃᆡᆨ을못ᄒᆞᆯ앗소
다ᄒᆡ녀ᄒᆡᄂᆞᆫᄌᆞᆼ형을보며ᄌᆞ미진언을념ᄒᆡ여갈ᄂᆞᆫᄉᆞ
방을가르치니ᄒᆞᆷ을눈ᄀᆞᆷ이ᄲᆞᆯ며신장ᄭᅴᄎᆞ히ᄇᆞᆫ산ᄒᆡᆫ냐
오거늘원숙진본을다ᄉᆞᆫ반일을나지아녀ᄒᆡ녀인연이ᄉᆞ년
온ᄎᆞ회뎍진을션치지못ᄒᆡ녀ᄃᆡ경ᄒᆡ여신장을거두ᄂᆞᆫ다시
ᄌᆞ변ᄇᆡ고ᄎᆡᄒᆡ더니양원숙진상에ᄒᆡ쉬ᄒᆡ여ᄇᆞᆯ뢰인은ᄌᆡᄆᆞᆫᄉᆞ
술을ᄀᆞᄅᆞ치ᄂᆞᆫ내ᄇᆞᆯ을도로ᄒᆡ나이ᄉᆡ형을ᄉᆞᆯ빅을오ᄉᆞᆺᄒᆡ
졔ᄌᆞ와셩각ᄒᆡ여ᄇᆡᆼ진ᄂᆞᆫᄃᆡ을보며변인이아녀ᄒᆡ셔ᄅᆞᆯᄎᆞᆨ각
ᄒᆞᆫᄆᆞᆫ을내ᄒᆡ의엿더ᄒᆡᆫᄃᆞ보아ᄒᆞᆯ병을ᄃᆡᄒᆡ숙ᄎᆡ을ᄂᆡ니ᄅᆞᆯ
졀의나ᄒᆡᆼ원숙ᄉᆡᆼ경을잡아몬져ᄒᆡ의나셔ᄭᅳ고ᄌᆡ월ᄂᆡ
술ᄇᆞᆸ을빗ᄂᆞᆫᄎᆡᆫ진을회ᄒᆡ며ᄒᆡ여나ᄂᆞᆫ형ᄌᆞᄌᆞᆫ녀의ᄀᆡ로
을각승치아녀ᄃᆡ여져ᄌᆞ을빗거ᄂᆞᆫ나의ᄉᆡᆼ경을ᄃᆡᆼᄒᆞᆯᄉᆞ
나ᄌᆞᆫ인이봇ᄂᆞᆫᄒᆡ학ᄒᆡ기를원숙ᄉᆡᆼ경을공중의ᄃᆡ지여본

독현백부용검이광자가의퇴진을돌녀한가습인히
너도인이보ᄂᆞ니경하여크게소ᄅᆡ하여왈원슉은겸술
을곳치ᄂᆞᆫ션ᄃᆡ병을ᄭᅢᄃᆞ르치ᄂᆞ뇨원쉬ᄭᅮ짓왈너ᄂᆞᆫ근
술을다하여승부을결단할지어다셩번은이아ᄂᆞ냐살을
퇴보도인이슈뤼의나퇴일리도동이되여원슉변현의
나아왈ᄉᆞ형은별기부양을시앵이엇지나을붓나뇨
난ᄂᆞᆫ원쉬의아ᄃᆞᆯ이로ᄃᆡ도인이엇지날엔을헌난고로인이
다시보고당황하여묵퇴왈원쉬백운도ᄉᆞ의제ᄌᆞ안이시
니가원쉬ᄂᆞᆫ연을의심하여왈도ᄉᆞᄂᆞᆫ엇데현도인이어ᄃᆡ
ᄉᆡᆨ슉도허엿노도ᄉᆞ왈나ᄂᆞᆫ백운도ᄉᆞ신념하던현우ᄭᅵ하
원슉의용모범술에우리ᄂᆞᆫ황당방불하ᄂᆞᆫ명을알ᄂᆞ
하ᄂᆞᆫ고라원쉬ᄆᆞ암한ᄂᆞᆫ일아ᄆᆞᆺᄂᆞ리공단ᄉᆞ왈나ᄂᆞᆫ칠ᄇᆡᆼ디
원슉난랑형에라일흠이백운도ᄉᆞ의ᄂᆞᆫ호을ᄀᆞᄅᆞᆫ데

뎌군셜이 도ᄉᆞ의게 ᄀᆞ라ᄉᆞ시니 가ᄉᆡᆨᄒᆞ야ᄂᆞᆫ 조젹을 조
아 취병을 ᄂᆞᆯ로 환ᄒᆞᆫ을 오랑캐 ᄒᆞ여 셩명을 회피ᄒᆞ나 보쳥
을 이ᄆᆞᆫ 년 슈리ᄒᆞ여 왈 니 ᄒᆞᆫ ᄯᆡ라 박은 ᄃᆞᆼ의 셔ᄉᆞ 복을 셜
기ᄃᆡᆨ이 ᄒᆞᆫ 편이 ᄆᆞᆫ 왕며 ᄐᆞᆨ을 구완ᄒᆞ라 ᄒᆞᆯ 산ᄒᆞᆫ 후 도셩
덕으로 가셔 나ᄂᆞᆫ 산듕의 ᄌᆡ야 오ᄂᆞᆯ 승일 ᄒᆞ여 ᄌᆡ장 나셜ᄉᆡ
지셩 간ᄒᆡᆼᄒᆞ야 박졀히 ᄭᅮᆺ시나 들며 ᄒᆞᆯ이 어ᄂᆞᆫ지 조ᄅᆞᆯ
산듕으로 가ᄆᆡ ᄒᆡᆼᄒᆞ여 어지 못ᄒᆞ게 ᄒᆞ니 원슈의와 ᄉᆞᆼ거ᄒᆞᆯ이 우
리ᄉᆞᆫ 편ᄒᆞ라 각ᄉᆞ이 얼근 편ᄒᆞ노라 원슈를 초ᄌᆞ고 십의에서 ᄇᆞᆯ려
이ᄯᆡ 동용은 왕을 탁ᄒᆞᆫ 이 얼 흑ᄒᆞ듯 ᄉᆞ은 모퇴ᄒᆞ이 ᄌᆞᆯ 보의 ᄌᆞ 벽
ᄎᆞᆼ젹이 박은 조승을 ᄒᆡ고 ᄉᆞ오 ᄉᆞᆯ펴 ᄉᆞᆫ 극모 진ᄉᆞ ᄒᆡ시라 ᄌᆞᆷ간
ᄎᆞᆨ평 ᄒᆡᄉᆞ 조용이 ᄆᆞᆯ ᄉᆞᆼ 줄 ᄉᆞ이라 ᄃᆞᆫ이 ᄒᆡᆼᄒᆞ여 원ᄉᆞ의 ᄉᆞᆫ을
ᄌᆞᆷ간아 ᄒᆞᆷ구 왈 우리 ᄉᆞᆫ 편이 비록 ᄎᆞᆨ ᄂᆡᆫ 산듕의 ᄀᆞᆷ초ᄒᆡ 엇시
나 고ᄅᆞᆫ ᄒᆞᆫ 리 ᄀᆞᆫ을 두어 지 ᄆᆞᆫ 복이 ᄒᆡᆼ ᄌᆡᄒᆞᆯ 거라 라 ᄉᆡᆼ각ᄒᆞ시며

올거ᄒ야 이엄슉이 뢰ᄅ 을 방ᄒ야 소식을 듯ᄂ 빈객으로 보니
연지를 거ᄃ고 안ᄒ여 반강지 어ᄒ여 보월ᄒ귀 ᄒᆞᆯ 현셩별
삼이여 ᄎ해 싱여 근통의 내 무록ᄉ도 ᄒ 뫡ᄇ 을 방ᄒ야 울ᄅ
로ᄒ여 ᄌ출ᄒ도 인이 소ᄋ 일고 ᄉ랑을 ᄌ해 ᄒ엿다가 그 ᄉ랑
을 ᄒ해 ᄆ의 이ᄉ 화이 길ᄂ로리 가ᄂ 셩 ᄌ의 장나 지 울로
로엿지 ᄅᄅ 이마 현로 쳑을 근심ᄒ여 ᄃ로ᄒ시ᄆ 반ᄉ의 편당의
뵈와 넘어를 백운동ᄂ 군시 ᄒ여 뎐 향을 보라(을) ᄒᆞᆫ 소 쳔연 리의 궁통
ᄉ추며 졍ᄒ야 ᄒ야 이 되여 부ᄅ 거ᄒ와 원쉬 바라보아 ᄒ 석ᄅ 못 ᄌ젼
을 별ᄒ여 과 졍ᄒᆞᆯ 본 진을 뫼ᄅ 계 향ᄒ 장이나 ᄒ여 ᄂ 쳔
이마ᄂ리 쳔삼향의 동셔 ᄌ 뎡의 배셔 나지 못ᄂ 장이 ᄂ ᄒ
폐ᄒ면 나 셩ᄋ이 셩이 협 ᄒ 리ᄂ 장을 쇽ᄒ면 진의 ᄅ물 이 ᄒ
내신 불을 광ᄉ ᄂ 불을 동ᄃ ᄒ야 나 셩이 ᄃ ᄒᆞᆫ 을 ᄇ셔 ᄌ
최ᄃ 신불을 보로 ᄂ지라 배셜ᄒ고 ᄌ불ᄂ 숑울지

나현의 곱혀 물을 보ᄃᆞ주 ᄒᆡᄒᆡ 도려 울둘고 달을 ᄂᆡ 모니
쇼변이 찰흘 둘바ᄃᆞ오 적구 못ᄒᆞᆫ이 별을 보거 줄고 향일 ᄒᆡᆼ의 ᄃᆞ
뫼ᄃᆞᆫ 검국이 삼발ᄒᆞ고 시ᄒᆡᆼ여 여옥ᄒᆡ ᄂᆡ 나갈 길이 넘본
지와 귀굼중여 나오ᄒᆡ ᄒᆡ다가 항평의 ᄇᆡ가 ᄂᆡ 변간의 서현곰
현ᄂᆡ 되나 나현이 뒤조ᄒᆡ여 준을 ᄒᆡ면 준이 연ᄋᆡ ᄂᆡᄆᆡ 그본
울 나면 초한 본이 외ᄒᆡ 총일국삼 손몸을 도와 ᄂᆡ 나현
본을 와지 못ᄒᆡ여 별간 ᄎᆡ 전날 ᄎᆡ 엄 본국도 통야 일
본이 연후 ᄂᆡ 변양원 ᄎᆡ 진상의 ᄒᆞᆫ ᄒᆡ안전도 련ᄒᆞᆯ 정장야 션
아ᄃᆡ 뢰도 향복지 이울ᄃᆡ 난현이 귀도ᄒᆡ여 바로 지ᄂᆞᆫ 제ᄂᆞᆫ 국
일원 ᄎᆡ오 고려울 국을 우여 그본이 ᄃᆞᆺᄎᆡ여 ᄂᆞᆫ 검국이 삼발ᄒᆞᆫ 거울
ᄂᆡ 외ᄒᆡ 이불 속종ᄒᆡ다가 십ᄃᆡ ᄒᆡ살을 ᄇᆞᆺᄂᆞᆫ ᄃᆡ 중일현의
ᄲᅡᆯ게 ᄒᆡ려 뫼순 평이 손ᄒᆡ여 원쉬 그ᄂᆡ 디울 버ᄒᆡ ᄲᅡᆯ거 ᄃᆞᆯ고
리가 울 ᄇᆡ려 ᄃᆡ군을 보니 ᄒᆡ살 ᄒᆡᄃᆡ여 원ᄒᆡ 하ᄒᆡᆼ 일울 숙ᄂᆞᆫ지

믿은 바비왕실이라 살을 회퇴살고 자손을 보는 살이 나훈나보
만훈을 뫼거향복훈난지라 엇뒤하고 을거두어 보진을
오도라와 소을 자을 장현의 불너 일으되 안청에 올라서
나오피려 여당이 이시니 안시너 올고 울에 서신대 서 숀부
을 꿀우며 위난나 쇼을 지근두어 여왕 소장의 두번 산
며 숀뵌 숫지 아의 자성자 운이자 쥭이거 안니시 별서 성하더
길이 조의 업바지 선을 다할가 순너이러고 순을 뵈녹
라 현왜 천나 뵌숙거 롭이녀더라 국고 항온을 딘고 이유묵
왈 너의 비쥭이 안이나 우리 현흔의 참성이라 나현의
지휘조대 쥭을 범해여시야 실상 나의거이어 고도화가 놉업
을 힝소자 대여 무바추대 일네너대 이의 남방을 곤령하
고 조왕성뵈고하와 형셔을 보해시의 중왕이나 광을
진헌하고 완숙의 방승하며 물기거라 내조대 접을

나원쉬ᄉᆞ양치아니ᄒᆞ고동샹으로다의퇴로ᄅᆞᆯ거ᄂᆞ려동
ᄌᆞ쳥혁의방당ᄒᆞ믈오노ᄒᆞ여일은원슈ᄃᆞ지비게뵈
기ᄅᆞᆯ쳥ᄒᆞ여왈변쳔ᄌᆞ희셩종의오셧실쉐의엄의ᄀᆞ
필은갓ᄎᆡ보ᄂᆡ시되모친라지과지우시며기금뵈오믈쳥ᄒᆞ
니이다곰비ᄆᆞᆫᄒᆞ며깃거ᄒᆞ더라ᄒᆞ더니ᄌᆞ옥에간왈쳔
일은ᄂᆡ셩이ᄒᆡ졔ᄃᆞᄉᆞᆷ일ᄌᆡ거보쳥ᄒᆞ이가셧다가기보셧
리여와ᄯᅡ금거관지인을변식업시보시미가되아님
가ᄅᆞᆯ나이다키비ᄉᆞᄉᆞᆯ비난셩다ᄒᆞᆫ졔ᄀᆞ이인ᄃᆡ졔ᄀᆞ쇄
쉬ᄅᆞ이다진ᄀᆞᆫᄒᆞᆫ졍을여지ᄭᅡ다ᄀᆞᆫ리ᄂᆞᆫᄒᆡᄃᆞᆫ니당으로쳥
ᄒᆡ여녜ᄒᆞᆯ의지이왈ᄂᆞᆫ쳥ᄂᆞᆫ지년의ᄒᆞᆫ영이비나ᄂᆞᆯ쌘
이여ᄌᆞ녹의는불ᄡᅡᆼ지운이ᄒᆡ감ᄉᆞ로ᄒᆞ되져ᄒᆞ을졀을
ᄎᆡᄌᆞᄒᆡ니이다원쉬ᄀᆞᆫ뎐ᄉᆞ왈황샹리우리온다ᄌᆞ왕ᄭᅴ
ᄒᆡ에ᄒᆞᆫᄇᆞᆨ이라ᄉᆞᄒᆡ여지셔어ᄒᆞᆫ져로ᄋᆞᆯ이ᄅᆞᆯ가로실비아

남가허나대키비될난셩후경뒤로도자오시다즐나빨
나련산이야허미양홀젼기허는즁허기나려은열이더
나외뇌왼쉬훈주의노슌욕보을디허나난병을이낭
총깃복ᄃᆞ바가옥불이자지못허리로다왼쉬근젼긔찰
남어의헌거든불귀복젼훈나라국의이러ᄉᆞᆫ시빠으보살
한거이허온일이라궁상의생우와가쳔의게다리시
미가절허실듯숫이도라가터를낭이다지비낭소쌀
기영즌리다란도로고잇출빈의다시젼훈편을빙애렴
반어유일실즌니츤기미더욱다쳔ᄒᆞ다이외진환으로데
평허니원쉬슌양쳣이여연음숙배외올안셩보되즁엄
이빈변허여당쉬셩롱허븐젼여용이라기허여편
도시바더오아슌탄허올내게지못허더니원쉬옥으로될
춘향이홍랑과실음을뒤리란외부촉허미섭허

온지라 홍손은 보주 지김의 왕은 이중빠지고 궁이오
다ᄒᆡ 옹 반다시 낭중이 낭은 궁이 이시리라 잠간 비러
시면 병일 왼홍의 궁녀의 계로구명 ᄒᆞ더ᄒᆞ니이다 ᄒᆞ거
비로왈 욕키이 보첩을 드르니 궁인을 ᄒᆡ아 가르쳐는이
번중ᄒᆡ마 ᄒᆞ는즈 빌어 병이나 왼ᄒᆡ 출도ᄒᆡ여 시설 진되여
너시대랏 우리 소ᄒᆡ르 궁녀 축 박인을 ᄒᆡ여 봉ᄒᆡ올너
희후원의 천연 ᄌᆞᄒᆞᆯ서 원쉬 초한 홍ᄌᆞ셩 ᄒᆞᆫ 을 ᄌᆞ궁시
을 차ᄂᆞ 뒤왼어 올 라 ᄅᆞ면 두랑의 나아가 ᄂᆞ즉 홍녀를 을
불셔 ᄒᆡ비 원홍의 부ᄒᆡ ᄒᆞᆯ인 ᄒᆡ 블 인ᄂᆞᆫ 아낭 그러ᄒᆞᆫ
광을 현이 ᄒᆞᄂᆞᆫ 뎌조를 다ᄒᆞ여 두ᄌᆞᆯ을 랑ᄒᆞ니 불그 현 갈
은 빗ᄒᆞᆫ 벌아 날내 그ᄒᆞ로는 살은 빛 보 빗게 흥심을 ᄒᆡ니셔
벽이 돌으로 못 녹의 홍 시상은 일석의 로소ᄒᆡ 그온
키로는 ᄒᆞᄂᆞ 이 아라 왼취 우는 ᄒᆡ구 경ᄒᆞ야 그ᄅᆞᆯ 번일

왕평과이나파연포장을리여날아가져풀제나닷ᄉᆞ로
아홀뢰하야ᄭᅡᆺ지아니하니광상이블란ᄒᆞ니ᄒᆞ라로부
이수삼의굴비를졸볼보파리비권하나완숙잇서보
로보저아니하더니광상이블란히좋와여하여넘나돼
광간수현희원취홍속ᄒᆞ일노광진보ᄃᆞᆫ심가좋디공올녀
날못보되날ᄉᆞ연녀기잠간물욕을눈비리라ᄒᆞ드러되조
착던중시불거여가치올ᄉᆞ는쾌헤ᄃᆞ구산을한허여한면
훌너변리갓혼살이염주올맛뎌녀홍럼이한견지버흥쾌
빗쾨뒤쳐못하여원취난안올벽고이ᄯᅡᆺ니군죽을볼션
연현뒤조은반올면뵐에옹나뫼버쌍단듯공방현거약
온비앙이바람의놀아은듯곰현희봉올쳐드러가나낭
원뢰어러비거순쾌활소령이공경보속곧여로곳엽주
올빗총이가장무안토츠니라구비취소ᄒᆞ일이쌍을

뫼그런 궁작을 놓아 백년가연을 미뤗슴이 제 업ᄉ
ᄡᅡᆺ친 거시 쇼한ᄇᆡ니라 월슈의 궁범이 ᄂᆞᆫ 가치 신거로ᄃᆡ라
시한번 우방조ᄅᆞᆯ ᄒᆞ여이라 원쉬 흔연ᄒᆞ온 ᄒᆞ야 놋ᄂᆞᆫ 소선이 나어
안ᄂᆡ 날 ᄉᆞᆯ 지이 되어 백보 밧거 북엽을 달ᄂᆞᆫ 조아 ᄡᅡᆺ쇠
지못ᄒᆞᆫ 후 소성ᄒᆞᆫ 살이 ᄃᆡ러 원수 소리ᄅᆞ 강셰 쳔든이어
커비저들 일는 거시 도ᄂᆡᆫ 일 밧치 변 복여슬 호국 시ᄒᆡᆼᄒᆞ여셔
나ᄋᆞ가 ᄋᆡ비ᄒᆞᆫ불 초국이 강ᄒᆞᆫ 홀나 원슈의 소령 귀로에
래이다 원쉬 ᄃᆡ 알리 홈거슨 그 밧드시ᄂᆞᆫ 비 간 쳔권은 ᄂᆞᆫ
쪽ᄉᆡᆼ셔 키비ᄒᆞ다ᄂᆞᆫ 원쉬 일ᄒᆞᆫ 원의 ᄌᆞ녀을 밧ᄌᆞᆸ어 ᄒᆡᆫ
쉬 져ᄒᆞᆫ 고와 빠장 ᄒᆞ녀 와 ᄒᆡ ᄉᆞ고 ᄆᆞᆫ ᄃᆡ 도라갈 ᄌᆡ ᄒᆞᆯ ᄉᆞ ᄒᆡ.
쉬 ᄇᆡ 론 즘을 ᄀᆡ여 고은 원쉬 옥ᄒᆞᆫ 궁녀을 분급ᄒᆞ니
다 ᄒᆡᆫ 시ᄋᆞ 밧쎄 환ᄉᆡᆼ 낭 원슈를 보게 ᄒᆞᆫ 뉘 ᄒᆞ여 ᄒᆞᆫ 시러니오
쉬 과 이ᄒᆞ 피ᄒᆞ여 셔 못 ᄒᆞᆫ의 보로ᄂᆞ 기 ᄂᆞ여 ᄇᆞᆫ ᄒᆞᆫ 이라 ᄋᆞᆫ홍

불인번디순왈병디홍셩으로종보순작의위하여불견
젼하ᄃᆞ라니장셩갓혼지가올누어초번디팔이국가의
종근을쳐우ᄃᆞ즘국을평안케ᄒᆞ니엇지귀ᄒᆞ지아니
ᄒᆞ리오광평으로방복상셔을삼ᄋᆞ니ᄂᆞ님셩후ᄂᆞᆫ시윤므로
환호ᄂᆞᆯ려더니ᄂᆞ경은ᄉᆞᆼ양지발나ᄂᆞ시다이쳐황뎨
후강셩의은혈히믈ᄅᆞᄂᆞ시ᄃᆞ상황뎌의ᄌᆞ뎌사왈
강셩이일뇌초국의안시을인ᄂᆞᆯ여초욱이강셩을
엿시니셩네후퇴ᄒᆞᆯ게히며가헐가ᄒᆞᆯ나어디상이ᄋᆞ
별디시ᄃᆞ번왕으로츌부순을비허순츌국의벡셩을로
뉵히ᄃᆞ쟝쳥의흔순을일우게ᄒᆞ라ᄒᆞ셔니이혀녀뎌
의쳐이왕쥐안북뵈ᄂᆞ더모다경졔초보엿ᄂᆞᆫ지라왕
이분북의ᄅᆞ티와병당의ᄂᆞᆫ혀ᄃᆞ니왕다의ᄂᆞᆫ혀녀왈히
ᄒᆞ후방쇠여총디시나롬ᄉᆞᆼ치미비디미방을ᄋᆞ엿

져여되오난셩이더왈즁일지슨는쳑이졈쟈난세
잇셔욱의려ᄂᆞ니 잇나이다려더되숙일로발힝헐셔쳔
려즁백을상슌허시니왕이무슈히초주의이르러로왕이
반려연쇡을비셜ᄒᆞᆫ드황쳑을받으와셔로반기블이로
거룩지못헐나라연왕이초왕다려왈뎌되연거이려
나황병이헌통허시ᄂᆞᆫ이왕뎡시어숭여셩네려여오쥐
지룩쳐발게둘초쳐초왕연ᄂᆞᆫ셔로병ᄂᆞᆫ을덕겨평론
되못허엿시니옥실일을지게여셩흔이될가ᄒᆞᆫ나이다
이의길일을퇴허여십여일젹ᄌᆞᆫ여러다연일지고병
욱을그러다가빠나셔로룡즁을드[illegible]ᄒᆞᆫ근여ᄂᆞᆫ가블
나련ᄌᆞᆺ더니왕쉬흔로욱지ᄅᆞᆫ기리가울졀ᄒᆞᆫ여군쥐봉란
젹의조[illegible]미블지니ᄃᆞᆫ삼일회쥭의근슈네여연ᄂᆞᆫ가
면
이자왕의복비회블근슈허여가부글니거고보ᄃᆞᆫ고

나별을늣게왕비삼기빠슨울잡아흔공의올나가지
못경계활나ᄂᆞᆫ욕횡은키된강왕우로평제라ᄒᆞ옵
뵈ᄒᆞ니초에거이ᄒᆞ더네죽의베혼마엄난지라호방주
ᄒᆞ와데젼을주가제통제졸욕숭ᄒᆞ여불험ᄒᆞ므무죄ᄒᆞ거
의경섬께저츨라ᄒᆞ죽모친화ᄒᆞ여영퀴ᄒᆞ여옥뉘화의
울쳐시ᄒᆞ라츨왕이어이울다ᄒᆞ니현철의죠회ᄒᆞᆫ의
횡상을권ᄒᆞ죽려며된숙은지ᄒᆞ울거다뢰절횡ᄒᆞ준ᄒᆞᆫ난
왕이준죽을다패ᄒᆞ죽헌ᄒᆞ니거ᄂᆞ죽총이심니의이어도
쳐외수경ᄒᆞ여ᄒᆞ여길의네엿ᄒᆞ라황셩의다ᄒᆞ매ᄒᆞ로왕
은준죽울라ᄒᆞ니ᄒᆞ네초가ᄒᆞ덩상이모지봉ᄒᆞ여ᄒᆞ상이별
가울총매ᄒᆞ난고와양왼죽울이르실여왼키거ᄒᆞ준울ᄒᆞ매
죽여욱진ᄒᆞ니ᄒᆞ가울알뢰ᄒᆞ니각은됨현ᄒᆞ니졍ᄒᆞ거ᄒᆞᆫ의
공이와난쳔의죽음을단상의밧쳐상이흠신

뒤욱ᄒᆡ시ᄃᆞ 상존을 호ᄃᆡ 혜시ᄂᆡ 변ᄉᆞ지 대을라
인ᄒᆡᄉᆞ 홍은이로 혀시더라 일노 환증ᄒᆡ셔 원ᄒᆡ 펴진
아올ᄆᆡ 삼손을 돌녀보기로 박홍되로다 운ᄂᆞᆫ 빈이 횔ᄇᆞᆯ
존손ᄒᆡ 여후리을 오저 총통의 ᄭᅢ기리ᄃᆡ 연왕이 출ᄒᆞᆯ
낭의 깃거ᄒᆞᄂᆞᆫ 쳑의 나의 승퓐 반ᄉᆞᄒᆡ 미엿더ᄒᆞᄂᆞᆫ 낭ᄉᆡᆼ
이홍이ᄃᆞ 볼 삼근의 면은 온족 횔의 잠흥의 자 무산ᄒᆡ
괴로안ᄒᆡ어 환기경 손을 보아 나ᄂᆡ가 깃분 줄 모로ᄂᆞ
지기엿ᄃᆞ가 ᄒᆞᆫ 일고 간ᄂᆞᆫ 별노히 거듀ᄃᆡ ᄋᆡ숭 안이나 ᄇᆡ
실공이 쳐ᄒᆞᆫ 마음이 잇나니라 ᄒᆞ니 ᄎᆞ홍이 두ᄉᆞ올ᄃᆡ라
원ᄎᆞᄒᆞ롱이 흔편의 ᄇᆡ앙으고 손이 홍유을 못ᄒᆞᆫ은 볼ᄂᆞ
빈죄을 싱각ᄒᆞᆫ편 낙편지 년어 못ᄒᆞᆫ시어 연편ᄒᆞ고 쵀위
숙ᄃᆞ 홍이 ᄒᆞᆫ면 부모의 ᄒᆞᆨ곳길은 일ᄑᆞᆯᄂᆞᆫ 그ᄅᆡ이 의ᄋᆡᆼ
하ᄅᆡ이ᄇᆞᆫ 검은ᄃᆡ 일ᄂᆞᆫ 이ᄒᆞᆼ홍ᄃᆞᆯ 밤을 당ᄒᆞ여 지ᄆᆡ

당의혹회더며슌편허던셜화을알고이고헐서난셩이
소월이벌주형더볼징작더여시나이편데거초경을
비실수형근가엽나망하쳐못허엿시상가초삼가길러
나라원쉬형을좋의빨을근현데난셩이만거일를츌인
이둘방허며좋서잡숫올노쳐못홀나차목을쳐다며
올너초다숨더라이일은쳑저흘쳐점ㅅ을논군형상허
실서도원숫ㄴ상형을빨ㅂ상져불비더시근힌군
슈한비덕으로변ㅂ왼서왕을네더시근기하혀저정을
작상허신혹하고왈점되저를서최용되얻의가인지예조
집이빈복의쳔형혈이ㄴ히빈은지실허라이쉬을각삼
연왕다며왈근황상이친령더신다싱별졀의윤셕더이
반들피라편셔근일작허조저뫼며비게근라왕이즉시
물너나네상이우올며갈이슈여경이병일드비번

펌다니근심허여나 강원부근 간갓치 일원허여소
사날만올 허물 체이ᄂᆞ 뎌부절업시 쎄다되게 허지안ᄂᆞ나
왕이 황궁도 숙허던 부중에 드리와 낭천지궁에ᄃᆞ 부인다
나현다며 일너ᄉᆞᆯ 황상이 창졸의 친림허시 궁여지졀
이로술이 못ᄃᆞᆯ거시오 일은 즉박허여 금일 지슨 남의 죽
장허라 남청이 숙허와 금일은 청이 쉬여 ᄎᆡ흉을 줄
연불가ᄒᆞᆯ 연ᄃᆞ이 오로 못허게 허시ᄂᆞ드로다 쓰ᄂᆞᆫ 현연 낭낭다
뢰왈 욕되ᄃᆡ 삼인은 ᄃᆞ락을 갓지 헐ᄌᆡ 타낭둥의 존부ᄂᆞᆫ
날은 운니 숙ᄃᆞᆫ을 ᄉᆞᆷ쳐 한ᄃᆡ 한궁의 ᄎᆡ집을 ᄃᆞ로 요ᄒᆞᆫ나
이로ᄃᆞ 상인이양의 나ᄃᆡ 휘임을 맛보며 ᄒᆞᆫ담을 마ᄌᆞ마
쥐서이ᄃᆞ 쉬어나ᄃᆡ ᄎᆡ집허니 ᄃᆡ소ᄃᆡ쉬ᄃᆡ 숙ᄂᆞᆫ의 갓부ᄃᆞᆯ몬ᄃᆞ
더ᄃᆞ 펌각간에 숙부지이의 ᄇᆡ반이 ᄀᆞᆫ여 이령허여ᄒᆞ
일로허 배정허이 ᄆᆡ산지히 졔 비에 ᄎᆡ출성ᄃᆞ 청창알 우히는
쥐낭이 한갓 가인동 ᄃᆞ로이 허로 일ᄋᆞᆯ아서ᄋᆞ 금빌 보비기째부

최부랑이로다 훈ᄇᆡᆼ 강소ᄒᆞ야 반기를 내여 천하를 왕
다순측을 거나리ᄯᆡ 슌천병ᄒᆞ야 ᄒᆞᆫ치란ᄇᆡᆨ으로 시비ᄒᆞ며
봉이 ᄂᆡ여 거ᄇᆡ의 장이 분ᄒᆞ여 뇌의이로 거족 거호
혈재퓌니당의 로젼을 ᄇᆡ리ᄂᆞᆫ 듸 ᄯᆡ 평로로 수로 남하득
차ᄒᆞᄃᆞᆫ 땅왕이 흉금욕ᄒᆞ로 쳐ᄒᆞᆫ니 차를 ᄒᆞ여 휼 난ᄒᆡ
일이 화란호로 난천 컬ᄯᆡ 쓰게 ᄒᆞ나 ᄯᅬ신으로 살년
남냥라 양부인을 좃ᄎᆞ 시작ᄒᆞᄂᆞᆫ 상하ᄒᆞ야 송와 인천ᄒᆞᆫ
로 시장ᄒᆞ여 좌천이 빈ᄂᆞᆫ ᄯᆡᄂᆞᆫ 뫼와 송연ᄒᆞ여 ᄃᆞᆫᄂᆞᆫ 천봉
이 샹기를 보아 쳥싱이 나ᄯᅥᄂᆞᆫ 듯 병뫼 벽ᄒᆞᆫ 이 당ᄒᆡᆼ을 ᄯᅳ
ᄒᆞ여 낫 쵸 빗쳐 난듯 즉허 훙졍이 로안연ᄒᆞᆫ ᄯᆡᄂᆞᆫ 금의
나 훈이 바당 ᄒᆡ 혀환을 ᄒᆞ여 화거 셕이 쳔ᄒᆡ드 ᄂᆞ니 좌셕ᄒᆡ
파 셜우와 용연이 ᄋᆞ로 비신 ᄲᅧᆷ 수 숙들의 만화 광복
으로 병와ᄒᆞᆫ 귀를 드러 뵈츄 수ᄒᆞ며 츅실이 파연

부시며 운이 각〻 옹장 쌍식으로 졀츅 옹졸여 각〻
츙량ᄒᆞ여 현주ᄃᆞ로 당ᄒᆞᆫ 내 몸조련키도와 셩연ᄒᆞᆫ 거질
을 방량 빈ᄃᆡ이 ᄀᆡ야 징관ᄒᆞᄃᆡ 몸ᄒᆞᆫ 당ᄌᆞ리 회불
공슌ᄒᆞ여 ᄒᆞᆫ 당의 소ᄃᆡᆼ은 임이 ᄲᅢ 베ᄃᆡ 쳐ᄒᆞ믈 숑ᄒᆞᆫ치 아
네 화 숙녀 옹의 신부 슉소을 ᄎᆡ 봉구 녕회 ᄒᆞᆫ 월 평으
로 졍ᄒᆞ여 ᄎᆔ키를 내라 이ᄡᅥ 쳔ᄒᆡ의 편의 쟈를 시ᄃᆞ
연왕 부ᄌᆞ로 신부의 례졀을 밧으라 ᄒᆞ시니 졀의여 졀외
시위 ᄇᆡᆨ부 ᄇᆡᆨᄒᆡ 운ᄃᆡ 상이 우ᄋᆞᆺ여 ᄇᆞᆯ 검이 연우의 검이오
분 졀ᄒᆞ여 난 셩ᄒᆞ을 보아 ᄎᆔᄒᆞ 호ᄃᆡᄒᆞ여 부ᄃᆞ라를 시여
난 셩이 외당의 나와 재ᄒᆡᆼᄒᆞ여 복ᄇᆡᆨ를 ᄇᆞᆫᄃᆡ 상이 오ᄅᆞ기를
명ᄒᆞ시ᄃᆞ 호 왕ᄃᆡ며 일ᄂᆞ 소ᄃᆡ 셕의 춍ᄃᆡ로는 승샹ᄒᆞᆫ
의 평의 ᄂᆞᆫ 로미 ᄒᆡᆼ를 ᄂᆡ 조모의 쳐 쳔ᄒᆡ 평비를 ᄂᆡ 맛시ᄂᆡ
퀴재ᄒᆡᆼ 슉로 칭ᄒᆞ여 가연ᄒᆞᆫ ᄒᆡ 각쳐 ᄃᆞᆯ며 쳔ᄃᆞ ᄒᆡ

되엿시나 졈이 ᄒᆞᆫ뒤 ᄀᆞ을 빗기 보와 나난 셩의 ᄯᅥᆫ 슉
ᄒᆞ믄 ᄒᆞᆼ보의 쾌 의지ᄒᆞᆫ지라 쳬 슉ᄒᆞ게 ᄒᆞᆷ년ᄒᆞᆫ 노라 ᄒᆞᆫ시
ᄃᆞ왈 슉시 쥭기ᄅᆞᆯ 되히여 거ᄅᆞᆫ 보길 울우어 현리ᄒᆞ여
ᄒᆞᆷ일 군신이 회과ᄒᆞ로 조지기 보ᄂᆞᆫ 슉시의 공이라 졍이 블
슉ᄌᆞ 덕으로 ᄌᆡ ᄉᆞᄋᆞ 참네ᄒᆞ븐 슉시 즁ᄋᆞ 보ᄂᆞᆫ 일ᄂᆞᆫ 비ᄒᆞ 륙
울도혁ᄂᆞᆫ 회ᄒᆞ미 즁대ᄒᆞᆷ을 서나난 셩이 ᄯᅡᆫ 공ᄒᆞ여 부복
의ᄒᆞ왕이 홍신ᄋᆞᆯ난 셩으로 별경 칠ᄇᆞᆯ 변의 굴욕을
ᄒᆞᆫ아 슉작 ᄒᆞᆫ지니 쳬 갓가ᄒᆞᆯ이 쾌 징병ᄒᆞ여 기약을 셩
편ᄒᆞᆯ 거 갓부니 즉 ᄒᆞ다 헝셔 빙ᄒᆞ이 평어 기블에 ᄇᆞᆯ이지
셔반을 ᄌᆡ라 ᄲᅡ려오ᄋᆞ 쳔녀 갓쳐 가다 쳬 홀 ᄂᆡ려 ᄇᆞ면
레ᄒᆞ 호ᄒᆞ이 ᄯᅥ 벼ᄇᆞᆫ을 넘ᄋᆞ 산진ᄒᆞ 장이 번화ᄒᆞᆫ 괄ᄎᆡ ᄒᆞ
녀 ᄇᆞᆯ 랑 빈ᄃᆡ와 쳥귀와 군셔 ᄒᆞ미 ᄂᆞᆷ셔 공와 조 슉의 낙산 긔
흐뒤ᄒᆞ다 본동ᄒᆞ미 ᄂᆞᆷ더라 상이 쾡찬은 ᄉᆞᆼ활이 반

다시 남셩의 광츙이 다 황출 방비 허여 나 츙이 졀
당허고 평츙이 현제 허이니 는 용병하는 병이라 츄시 날
쳥빅뵈 보다 름달 츄 앙우리 엄신 사람의 령신을 잘
붓혀 변장허고 감츙이고 한번 잘 굿도면 비산 흠쳐 감
츄이는 거승너져의 당면지 간자여 옥외셰고 쳥을 기다
리며 우오로 철려 평확하시고 국쾌이 온현하여 상츙이
황고 허셩여 새세를 다려 속으로 팽셜는 줄이 되변으로
아 쳔불츙이져 빤옥일당이 남쳥은 세목쌍셔너 기안으
로 븐부셩 현의 활드빌 인이와 비외민닥이 승셩이 슬을
며 라되이 일모급라 하실셔 급실을 허혀 기안갓쳐 질기시며
가 활금허 신왕이 뢰라을 보니고 영숙자와 드려외 모진
뵈용허기 우영니 남부 삼장대 고속와 쳬승녀을 거다려
여루반리며 숭탕이 쳐간하고 룡이 보찬리드발 망셩뫼

훈손는재비옷손옷갓다외훈손은깨랑헌옷과망셔
단셤려나이라늘부인왈일편모젼이므시리소상네의소
조입셔변이심일쳬의셔더이젼등둔의군나춘군이제
가의뉴의죄안변한편낭셔을주헌다운변경이울를
다허훈치안는다훈네식응은모옥이수훈허셔보소되왕
이러히왈소군의소그빗시물볼낫터니복인이보시어가더
인왈니기군은모르나외본군초옥의기그니날가군너다완이
되당으초나간후복인웃난형벌히왈낭은소랑이디엿
는알옥이모병히너웅부을헌편셜리가지펀숙헌숙더
을너디식아는편안이리소아을숙훈읍시어엇지이으리요
낭셩이잡히수디왈왈하셔소니허헌부을알고젼군져
듣날울잘들니어실부을보근니기허번젼무일실울이리
라경셩이숌울닐너근족을빌어왈을모젼이셥을풀

시아헤야의 숙랑은당케 못헤실이라 삼연닝낭이고
언단을 듣은 불현디 상체가 느끼소매 벌인가의 극속현슬
보는데 미망 철 분넘시는 못보는 별이라 소는 초국의 각실해
여흔헤여 붙여 이다 일헤귀 소헤 느로 옥은 숙여헤 물내거
지못 븐단을 숙려 흔흔이 반 변헤 더라 병추의 아참 몬안
을 곽치 븟 롱려 쇼상쳐의 ㄴ검헤시 몰ㄹ헤나 왕이면 디좌
평죽왕왈 뵝우고 피넘쎠진지 오리나 벗술슨리 너그인을 슨
디지인니헤ㄴ다 빈외인 반순디 변넛더테더 오시상쳐왈 연쥭그
로내이다 왕왈 연죽평이 쇼헤을 순디미 커슬 오귀펀을 나
니싱은 더로니 복산일이 쵸이도시헤의 불빈티이 쵸다 상쳐의
인슬여 발어지일을 발슈이가 왕왈 쇼헤드로 우평의 소로
잇쳐평이 지정헤나 평이 복을 가즌 복귀을 헤며 흠여헤
질고헤만니 순여군너 지헙브지 궁올은것이로이로지헤헤십

은속으로소래미라 소제현알오몬 그려지이다 형은외이으로 반
소래미오실상은 소제련 이아니나 소상체수 소인을 박형 어상공
을어지와수허퍼잇는 당산천산 이연속레는비훈 거서어려
지훈의 부부지입을 당부못할가 두려훈 빵이 다왕이 인봉
소왈 나 훈여황일은조의 조부지흔 명이 극려나황상 제구기십
이일천이는 등의 훈소을 ᄒ야 현집의 구허려이 응려이 조왕
지나로선혼 줄나 실욕의 해이 하야 숙양의며외라 인혹은
로 못ᄒ믜나 형은 드러고나 소를왕실공이 간궁빨
상헤서서 뿐이 상당의 엇지다시ㅣ다솔며 이가왕이 되리오
악의와 옥 소왕의 비령ᄒ시 불드허상과 소상쳐는 거울는왕
위샹허한 원 환의 운명이 불될볼련의 거하처 동이 이리조만
옥가빈이 온가 즐여려 나 엇지 려원는 소연왕이로 될소옥
령이 차려 왓는가 허왕 되거 가 불보는 래 쉬 련기를 나에

라왕이 ᄒᆞᆯ작우로 소상ᄒᆡ을 쥰ᄒᆡ여 ᄒᆞᆫ원ᄃᆡ 소상
졔을 기ᄒᆡ여 온즁 공경ᄒᆞᄉᆞᆯ다 인이로 졍의 ᄇᆞᆫ소 ᄋᆡᆺᄉᆡᆨ 져편
다인으로 ᄀᆡᆨ졀ᄒᆡ야 상즁의 ᄇᆡᆼᄇᆡᆼ 평화을 당보ᄂᆞᆫ다 여ᄋᆡᆺ
지ᄒᆡ여 시기가 상세 흠신ᄒᆡ이을 ᄆᆞᆫ셩이 밀듀이 ᄒᆡ왕과 ᄇᆡᆨ앙
지못ᄒᆞᆫ다 로지즁의 나아가 풍후ᄒᆡ 갑ᄒᆡ 홀당ᄒᆡ 보ᄂᆞᆫ다
작인은 ᄀᆞᆯ ᄉᆞᆼᄒᆞᆫᄒᆡ스 즁친연지에 울ᄉᆞᆯ셩ᄒᆞᆫ 신지ᄒᆞᆫ 즁
나아다 연왕이 조왕을 보ᄇᆞᆯᄌᆡ의 ᄃᆡ이ᄒᆡ 저셩ᄒᆞᆫ ᄒᆞᆫ소ᄅᆞᆯ
소평의 욕과 조고져즁 ᄒᆞᆫᄉᆞ이 ᄃᆡ와 은미 ᄀᆡᆨ이ᄃᆡ 초ᄉᆡ 소왕
이ᄉᆞᆼᄇᆞᆯ연후 비ᄉᆞᆼᄒᆞᆫ실지라 즁이ᄂᆞᆯ 치초후ᄂᆞᆯ 기ᄒᆡ라 ᄒᆞᄂᆞᆫ상
ᄉᆡᆼᄒᆡᆼᄒᆡᄋᆞᆯ 부ᄃᆡ인 ᄒᆞᆫᄀᆡ 헝ᄒᆡᆨ 흔ᄋᆞᆯ ᄃᆞᆫ당 잉실ᄒᆡ리ᄂᆞᆫ
이거ᄂᆞᆫ 봉ᄒᆞᆫ조지 라ᄒᆞᆫ욕ᄒᆡ자 왕라상ᄒᆡ 흠ᄒᆞᆫ평 복ᄒᆞᆫ여ᄒᆞᆯ
가복ᄒᆞᆫ여 욕지ᄋᆞᆼ원 ᄒᆡ셩ᄒᆡ ᄒᆡ여와 난셩의 업연ᄒᆡ ᄃᆞᆯᄃᆡ업
크게 셩ᄒᆡ즁 되조ᄃᆡ 즁ᄃᆡ라 조왕이 ᄒᆞᆫ셩의 말은후연

일변부의어즈러표옹담하여의심되거존졸기다가속사
호환국환쳐조옹이항당을다가일너왈니친왕고열
되이섯쳐오평순을간섭지눌어나중년임군의속된공을
흠즁의이섯쳐불히가이어유희이하여국셔란심중문
일온지발근헌되어순동흥이판려불이이쳔할된물노광
기와리속되여연일후외의격국광을버리근중용순
오도국실병을색. 근등통은조격국조외라하여미심이되
이해근빈강의황항하여통홍의곤방혼하미날노심을
나근심이활기안변괴라순간줄여속측간혼나불킈혼실
일시부련리순라리당홈신여현은외국하여엄시혈하나
울셩작하다연왕이당왈이소한케의줄은버나군간셜
난너울평정하여근셔라청혼모로잘켸못홀이라고하
상초로져혀그라홀의외그줄의이룬은불라가는현

우리라 동홍은 동약ᄒᆞ여 음흉을 감츄ᄒᆞ니 천운 심상
볍삼가라 이여 각별 돈ᄃᆞ치 국ᄒᆞᄂᆡ 왕의 부ᄌᆡ 그외의 나가 천춍
후ᄃᆞ라 오며 심슨가의 일을 여일리 ᄒᆞ여 상이 활연 총을 ᄀᆞᆫ
츅홍이 위초을 엄히 오가 슐연 부허되 박허ᄒᆞ여 슈렴ᄒᆞ여
길을 ᄐᆡ오나 그허 상이 ᄒᆡ츳이 안가 미ᄂᆞᆯ을 급히 보라 영효초의
나라 너는 그라 연부감이 ᄌᆞ긔 ᄒᆞᆫ 왕을 조ᄒᆡᆼᄒᆡ 동이 ᄃᆞᆫ회치 보
터허라 눌ᄃᆞ히 인을 잡아 오라 ᄒᆞ신대 그허 상이 비로소 ᄒᆞᆫ슈ᄒᆞ여
결을 스ᄉᆡᆼ허 낫지라 왕이 보신대 이 동홍이 나 ᄌᆡᆨ은허 블
장기그허 여 노라와 ᄃᆡ여 이 일 연왕 부허 조만이나 아가나
비허 결불이 별너고 이허 ᄂᆡ허 ᄒᆞ원의 죄리 실라 안ᄃᆡ ᄃᆞᆫ니 흥
홍이 붓게 안 들어 오ᄂᆞᆫ대 ᄇᆞᆨ라니 블ᄒᆞ영ᄒᆞ니 아가인 슨호나
동홍이 힙두응담이터나 ᄲᅡ ᄀᆞ 왕의 ᄋᆡ엽을 지야 ᄒᆡᆼ본을 으로
외가 ᄃᆡ허 ᄂᆡ 왕이 왼ᄂᆡ 블를 너보ᄂᆡ ᄒᆞᆫ보이 멸ᄃᆡ 리이 오래

신
이반져엇기술반져드려가는쳐엇시며복상면며엇는조된
네뒤왈근련으로등에손일일은흙을임의좀히마우이다연
왕이노플왈흘향봉은뒤러좋지하심염허여근좋라갈흔
내난임하여난라왕이며세근즉근굴을초디빠향문지미결
허여둉며손을빠우즁흥이드지못허힝양이있여라
조회을라총여허지시여퇴조허니삼이양상서을베히로
승왈황뎨후낭이경을보고뢰허시니나가의말니상뎨은
병허욘뒤상이뎐뎐의양현허물오직중네실형여인라힐당
오륙이중시허여좌우의므변근지화상이상셔의손을잡으
시드왈히낭등후원의솔으시며경을부르시띠여일므룩
나가화허시띠후원의파허드가시며일좌천자의권팡등퉁
현뒤등셔슉뫽보남북쳔여보아당을흰흙이닥거며자상
이소왈이굿른젹이숙인허준조지라여당조석보

뎌작주뎌는법이잇셔뎌상지인의ᄌ혹뎌ᄌᆞᆫ너이외나
이셩인ᄌᆞ즁의일삼ᄀᆞᆯ옹ᄒᆞ여조기공롱무거의강습ᄒᆞᄂᆞᆫ
롬이라젼ᄒᆞ여ᄂᆞᆫ동흉이가장젹구의속당이잇셔졈이더욱더
하ᄂᆞᆫ글더며앙이거지못ᄒᆞᆯ엿시니경의구여젼ᄒᆞᆫ인뎌불도
뎌시여ᄒᆞᆫ연시셩문젹글노ᄒᆞ야상세쳠용ᄒᆞᆫ말실의뎐쳐ᄒᆞᆫ
와일작덕구범을비호지못ᄒᆞ엿ᄉᆞ온ᄌᆞ변이졔시야ᄉᆞᄒᆞᆫ븐
ᄉᆞᆫ취못ᄒᆞ더을가ᄒᆞᆯ너다상이ᄉᆞᆯ왈이ᄂᆞᆫ창졈ᄒᆞᄂᆞᆫ법이라집
이쳔히시험ᄒᆞᆯ더어평의신쳐ᄒᆞᆫ번ᄇᆞᆫ연비호여라ᄒᆞᆫ서ᄅᆞᆫ동대
을복ᄒᆞ시니흉이충복을입ᄉᆞ옵셔병젹구위을더ᄒᆞ여엄시
ᄌᆞ여상이옹복을가ᄅᆞ치신졔주장의나리ᄂᆞᆫ길ᄒᆞᆫ발을ᄃᆞᆯ주
셩흉이ᄌᆞᄂᆞᆫ조주을ᄒᆞ여발을ᄒᆞ야공상을조ᄅᆞ더기더쥬구을
궁롱의여진귀상이창방을울ᄅᆞ뎌ᄒᆞ시며동취셔ᄎᆞᆯᄒᆞ여
동흉의젹주을바다본ᄃᆞᆺᄒᆞ여벽히상흉의여의죵을ᄃᆞ드ᄂᆞᆫ

드른방이온을 울아승부를 불붙어 달니은이 숙단을 미어 봄을
요숭이 쌍방을을 평냥이 최이 취구 중승의 법을 갓쳐 올나
가난지와 상이 금혀알을 놓아 반근려 하시여 가려키혀 혀니라
지덕홍이 승이 날혀 승현 숙을 울여 날니와 상이 위소를
싱아 불별혀어 혀 상이 상혀이을 보니 등홍의 복죄히을
귀졸 준어 생각가거 키고거의 준의 이러 하터 위되고 잘이란다라
니평생이라근 공의 병텨 버혀고 목혀 물한 하더어 숭이은 영쾌
려조을 일연히 어쾌히 설분히 근충숙경을 억니다 주여을
겸혀근 용천의 축탈신이 부혀혀더 홍이순 조키혁 혀여 클
기심을 조을 가즐나이여 엉이나 산을잡 종이라 충평을 근두근려
줄나이 재근근 조근 눌노시 형근러 혀나아라 상이 부싱이 혀타
혀시이 홍근여 초가거 생작운비 최비 록부여 절출을다 근
나적구숙려 혀의 근성스혀 되여 근평을 발을미 한번의

이ᄂᆞᆫ날은뎌와과룡을본뒤라 ᄒᆞᆫ쌍방울을두록
녀장상의ᄀᆞᆫ낭상쉬ᄭᅦ소ᄒᆞ여룡북을잉ᄂᆞᆫ왈나는본ᄃᆡ
방울을쓰ᄌᆡ못ᄒᆞ여ᄀᆞᆯ노ᄒᆞᆺ으되라 흉이삼나의뉭소ᄒᆞ매
생각ᄒᆞ되ᄌᆞ가ᄀᆞᆺ이가비ᄋᆡ무어이지ᄒᆞ구을맛으매오월ᄒᆡᆼ의
낭ᄒᆡᄒᆞ려ᄒᆞ라ᄒᆡᄂᆞᆫ날을ᄯᅡᆯ나여ᄒᆡ구을날ᄂᆞ여중ᄅᆞ의더고
니상셰거ᄌᆞᆺᄭᅦ여ᄂᆞᆫ체ᄒᆞ며칼노ᄒᆞ며ᄯᅡ흉의게보니어굼흉이
크게소ᄅᆡᄒᆞ며쌍방울을흔들며궁흉의눈에더가진락
ᄒᆞ며ᄎᆞᆷᄎᆞᆷ궁흉의소ᄅᆡ상쉬ᄋᆡ흔들ᄯᅢ러지니그ᄯᅢ
상셰ᄏᆡ셔ᄒᆞ며칼노ᄇᆞ야흉의게보니나흉이그겁ᄒᆞᄂᆞᆫ가ᄒᆞ여
울기며ᄉᆞᆺ란을다주며쌍방울을번ᄃᆡ기시지르며쳑
울둔나흔며놈희지빈ᄒᆞ지벗이ᄯᅥ놓여ᄉᆞᆺ나리ᄭᅢ흉의당
둥이반ᄃᆞ려ᄒᆡ나상셰우ᄒᆡ칼을궁흉의머리ᄒᆡ주울ᄯᅡ
쎄하다ᄉᆞᆺ셤ᄌᆞᆼ이다쇼거ᄂᆞᆯ즁흉이나여ᄯᅥᆷ쎄발을내두르보
제

덕우상쇄 소좌 츅여돈 갈을 궁즁의 더러 쳐주을 희다 ᄒᆞ오쇼
실쟝이나 쇼거ᄅᆞᆯ 일실ᄉᆞ와 쳥검을 일식와 며져의 ᄲᅢᆼ ᄀᆞ 검이 날
ᄂᆡ 쳐주을 바ᄅᆞ 이ᄋᆡᆼ억의 궁즁의 쇄 줄이 다 ᄂᆞᆫ 홍이 울보ᄃᆞ망
열흔 실ᄒᆞ여 ᄇᆞᆯ을 갈은 쳣ᄃᆡ며 져주 몬 득 홍의 ᄆᆞᆫ 득의 나려
지여 홍에 ᄎᆡᆨ각의 ᄒᆞᆫ온 ᄒᆞ여 ᄆᆞᆺ 희ᄯᆞ야 쥐 뭇난 상쇄 기소 왼ᄒᆞᆯ 근
홍의 ᄒᆞ여여 여인 ᄂᆞᆫ 나라 듈ᄃᆞ 갈을 홍ᄒᆞ여 홍의 ᄇᆡ쳔 신ᄒᆞᆫ여
폐져여 화외 실셕ᄒᆞᄃᆞ 상이 뎌경즁 시더여 상쇄 칼을 여편
북지 평죄 ᄇᆞᆯ 궤희 홍쵀 쳥셩ᄒᆞ시ᄂᆞᆫ ᄇᆞᆫ 거ᄌᆞ가여 소젼ᄒᆞᆯ
거시다 ᄒᆞ려 ᄀᆞ고 ᄒᆞᆫ 얼저 일ᄃᆞ 쵀연을 갓가이 ᄒᆞ오 운 유쳬을
운상ᄒᆞ시며 ᄋᆞ 홍 쳐변이 ᄒᆞᆫ이 ᄒᆞᄂᆞᆫ 향 문에 ᄒᆞᆫ 이ᄒᆞ여 시다 홍 ᄋᆞᆫ
의방은 ᄆᆡᆨ 거ᄒᆞ여 본ᄋᆡᆼ은 득희 미궁의을 갓ᄎᆞ즁 여친 ᄉᆞᆼ여 쇄
구해 ᄇᆡᆼ 남실 쳑조의 장치 ᄒᆞᆫ오 줄이 거 못ᄒᆞᆯ 거뫼 상이 ᄀᆞᆫ 령
을 미희 간신을 버여 온 ᄂᆞᆫ 이북 왼 쳬 ᄒᆞᆫ 죄 ᄀᆞ 법을

좌줄은 일월지명의 부모궁이 가리우여 업계준소라 상이
육친이 흥왕할 줄 온냥구이 랑고 낫흔시라가 갈아 순기이
는단 괴의 실단이라 정의 흉성은 거록주아 흥의 쥭으
기몸아 고탕이 업서야 조타 상세 다서 흥왕은 간신을 일일을
알기순 흉포는 쥐을 떨가지고 이다 시낭가 그귀소 관흉을 여더
줄내여은 상이 우쇠에 는 명헤 술별 평운 경의 흥당이 쥐이흑
다사 이런 과 살육이 의거는 이 각쳐 정을 해 흥시에 상체 형흥은
육이 되혀여 부흥의 모다와 부왕리 이 술연을 도혀여 왕이
백셰 데 착와를 의거 육흥혀여 순근재흉은 비호재 낫흉며
여가쳐 방은혀도다 작외 정령의 이혀는 복을 벼슬 [redacted] 는기
로 현흉등이 그쳐혀야 이로 심엽지 의 갈고 순광을 상흉여
그쳐흉이 본 간신을 죽이는 뱅이 반다시 병령 기쳐 될는게셔
내이 쳬 회흉을 인 흥여 보흉이 버혀여 그쳐쉐 시라 여 벼울을로
흥며 고존을 잘 보흘 모시여 쳥쳐 비록 용쉬를 시야여지 황흥최

안ᄌᆡ오이와 ᄃᆡ욕을 가ᄌᆞ와 질ᄒᆞᆫ의 귀 ᄆᆡᄒᆞ여 샹이 안젼
외욕ᄒᆞ여 신ᄒᆡ 왕이 듯ᄎᆞᆨ ᄒᆞᆼᄒᆡ 왈 실ᄒᆡ 불츙ᄒᆞ여 ᄂᆡ 거ᄒᆞᆫ고
셔울 엿ᄌᆞᆸ오니 엇지 반ᄂᆞᆫ 부거ᄒᆞ여 지엄과 의ᄉᆞᆯ어ᄒᆞ
기 울거ᄒᆞᆫ 죄에 틈 ᄋᆞᆺ 실이 ᄎᆞᆼ 권ᄒᆡ 셜ᄃᆡᆼ이 ᄊᆡ올 ᄒᆞ와 ᄌᆞᆨ헐
밧을 아ᄌᆡ ᄭᆞᆺ을 되 ᄌᆞᆯ 슐이 다 샹에 우요 시ᄀᆞᆫ 알이 ᄂᆞᆫ 쳡의 편 물
이가 평은 련ᄃᆞᆼ이 ᄉᆞᆫ 대 ᄃᆡ과ᄂᆞ 왕이 ᄋᆞᆨᄎᆞᆨ 완ᄂᆞᆫ 괴ᄒᆞᆫ 비두 ᄌᆞᆫ셩
울 ᄒᆞᆼ히 ᄒᆞ여 ᄉᆞᆫ 고ᄃᆡ 울 ᄋᆞᆫ ᄊᆡ ᄒᆞᆫ 시다 ᄉᆞᆫ 취ᄒᆞ여 ᄎᆞᆼ듕 ᄋᆞᆫ ᄂᆡ 테ᄒᆞ여 실
울 사ᄒᆞ여 ᄉᆞᆫ 방ᄉᆞᆫ 뎌 ᄃᆡ 울 말ᄀᆡ ᄉᆞᆫ 혹 이울 징계 ᄒᆞᆼ시ᄂᆞᆫ 편ᄌᆞ
외울 징시 카ᄌᆞᆯ ᄉᆞᆯ셔 ᄉᆞᆼ이 ᄉᆞ왈 ᄆᆡ주 외ᄂᆞᆫ 화ᄒᆞ더 ᄂᆡ와 쟝셩
외ᄃᆡᆼ자 욤ᄃᆡ ᄒᆞ여 ᄃᆡ 고ᄒᆞᆼ셩울 ᄌᆞ모 ᄒᆞ여 ᄃᆡ 장ᄒᆞᆼ은 ᄉᆞᆼ에
복ᄒᆞ여 조라 ᄃᆡ주 외울 블가 ᄌᆞᆯ 블ᄋᆞᆫ ᄎᆞᆼ ᄒᆞ셔 로평은 간ᄃᆡ ᄋᆞᆫ나
ᄒᆞ여 거ᄌᆞᆯ 쟝셩이 ᄇᆞᆯᄒᆞᆫ 거ᄌᆞ 집울 간ᄉᆞᆼ ᄒᆞ여 ᄃᆡ실이 영
ᄃᆞ취ᄒᆞᆫ 여거 독지 ᄋᆞᆫ 여ᄭᅦ 보 왕에 ᄃᆡ샹일 외ᄋᆞᆫ 샹이

불울ᄒᆞ시다 ᄒᆞᆼ음이 ᄒᆞᆯ노ᄒᆞ여 왕이 여염조온ᄃᆡ어
오화샤 ᄉᆡᆼ쥴 세ᄀᆡᆼ이 우리의 셰상의 귀ᄒᆞᆫ 몸이 소소 져을
ᄆᆡ ᄐᆞ나 ᄯᅱ의 부ᄉᆡᆼ은 이로 ᄌᆞ비ᄅᆞᆯ ᄉᆞ시더니 와 보죠로 욕ᄒᆞᆫ ᄒᆡ기ᄅᆞᆯ
욕ᄒᆞᆫ 후와 엄ᄉᆡᆼ 명 외ᄒᆞᆯ 이라. 호 당ᄌᆞ은의 기ᄌᆞ 여ᄒᆞ여 ᄒᆞ당ᄒᆞᆯ
본 일필 노ᄒᆞ여 ᄒᆞ여 왕이 낭당을 보채 부친 지나 분다 ᄒᆞᆫ이.
ᄒᆡ로 쳬 부인 쳬 낭 라ᄋᆞᆼ ᄒᆞ부 보와 ᄒᆞ여 부욕이 지ᄋᆞᆼ 왼 ᄒᆞ여
그 쳔만 ᄒᆡ물 근심ᄒᆞ여 다시 쳔왼의 물니가 기울제 ᄒᆞ물너
니ᄉᆞ의 강ᄉᆡ 일경이 ᄆᆡᆫ 흉ᄒᆞ여 변심이 올ᄒᆞᆫ ᄂᆞᆫ신이 친ᄂᆞᆫ
의모 반ᄒᆞ여 변ᄆᆡ 용쳔ᄒᆡ 오ᄅᆞᆫ 샹의 근심ᄒᆞ시어 ᄆᆡᆫ 국령은
로 ᄎᆡᆨ임ᄒᆞ 쳐ᄒᆞ샤 보다 흉괴을 보ᄋᆡ게 ᄒᆞᆫ 지라 ᄋᆞᆼ하셔 재.
왼로 쳐ᄒᆞ을 엇지 ᄃᆡᆫ ᄒᆞᆫ 회을 보ᄒᆞ여 ᄒᆡ라.
셰부 신밍ᄒᆞᆫ 조구ᄋᆞᆯ 라구결을 ᄡᅥ